

#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책임연구원: 김신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연구결과 요약

### 연구목적

- 한국 청소년의 정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수립·추진·평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체계화된 청소년발달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음.
- 이 연구는 청소년발달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거나 수립하는데 매우 긴요하게 쓰일 기초자료로서 2006년 연구의 자료제한성을 극복하고 청소년 발달의 결과 부문을 광범위한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

- 청소년발달의 결과부문 17개의 지표항목은 새로운 조사를 통해 개발·확정하고 전국 청소년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엄정한 표집과 자료의 정선을 거쳐 최종 결과를 생산함.
- 조사모집단의 확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내용의 질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됨. 먼저 조사대상의 확대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함. 둘째, 2007년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의 확대를 통해 종단적 연구(longitudinal research)의 한 유형인 시계열 설계(time-series design)의 구축을 통한 추세분석(trend study)과 생애집단(cohort study) 연구를 가능케 해줌.
- 이 연구에서는 2007년 조사시기의 청소년들의 인지적, 사회적, 시민적, 정의적, 직업적 역량과 특성들이 연령집단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에 대한 횡단적 분석과 동시에 동일 cohort 청소년들의 정의적, 인지적, 사회적, 시민적, 직업 및 직업적 역량과 특성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한 종단적 분석까지 가능케 해 줌.

## ▮ 정책제언

-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 발달의 결과 부문 조사결과는 일종의 사회지표의 역할을 하게 됨. 사회지표는 현재의 사회 상태와 변동추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며, 나아가 공공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의 달성수준과 변화를 추적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줌. 그러므로 사회지표로서 청소년 발달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결과는 현재 한국 청소년의 발달과정 및 변동의 현 상황 및 추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됨.
- 과학적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서 현실을 반영함. 통계자료를 통해 반영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통계 자체가 주지 못함. 하나의 사회현상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계 결과 또한 그것을 활용하는 행위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가능 한 것임. 그러나 행위자의 주관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칫 객관적 통계자료의 왜곡 내지는 호도까지도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함.

# 목 차

## I. 서론

## II. 본론

- 1. 조사개요 ..... 9
- 2. 조사 결과 ..... 12

## III. 결론

## 참고문헌

## 부 록

- 1. 2007년 설문지 ..... 73

## 표 목 차

<표 II-1> 응답자 분포 .....	10
<표 II-2> 정의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	13
<표 II-3> 인지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	20
<표 II-4> 사회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	26
<표 II-5> 진로 및 직업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	32
<표 II-6> 시민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	39

## 그림 목 차

<그림 I-1> 청소년발달 종합지표 연구 흐름도 .....	6
<그림 II-1> 정의적 특성-하위차원별 .....	14
<그림 II-2> 자아개념-학년별 .....	14
<그림 II-3> 자아개념-기타변수별 .....	15
<그림 II-4> 행복감-학년별 .....	16
<그림 II-5> 행복감-기타변수별 .....	17
<그림 II-6> 목표지향성-학년별 .....	18
<그림 II-7> 목표지향성-기타변수별 .....	19
<그림 II-8> 인지적 특성-하위차원별 .....	21
<그림 II-9> 창의성-학년별 .....	21
<그림 II-10> 창의성-기타변수별 .....	22
<그림 II-11> 자기주도학습준비도-학년별 .....	23
<그림 II-12> 자기주도학습준비도-기타변수별 .....	24
<그림 II-13> 문제해결능력-학년별 .....	24
<그림 II-14> 문제해결능력 -기타변수별 .....	25
<그림 II-15> 사회적 특성-하위차원별 .....	27
<그림 II-16>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학년별 .....	28
<그림 II-17>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기타변수별 .....	29
<그림 II-18> 사회적 신뢰감-학년별 .....	30
<그림 II-19> 사회적 신뢰감-기타변수별 .....	31
<그림 II-20> 진로 및 직업특성-하위차원별 .....	33
<그림 II-21> 진로선택의 주도성-학년별 .....	33

<그림 II-22> 진로선택의 주도성-기타변수별 .....	34
<그림 II-23> 직업적 특성이해-학년별 .....	35
<그림 II-24> 직업적 특성이해-기타변수별 .....	36
<그림 II-25> 진로준비행동-학년별 .....	37
<그림 II-26> 진로준비행동-기타변수별 .....	37
<그림 II-27> 시민적 특성-하위차원별 .....	40
<그림 II-28> 인권의식-학년별 .....	41
<그림 II-29> 인권의식-기타변수별 .....	42
<그림 II-30> 국가에대한 태도-학년별 .....	43
<그림 II-31> 국가에대한 태도-기타변수별 .....	44
<그림 II-32> 국제화의식-학년별 .....	44
<그림 II-33> 국제화의식-기타변수별 .....	45
<그림 II-34> 공동체의식-학년별 .....	46
<그림 II-35> 공동체의식-기타변수별 .....	47
<그림 II-36> 사회참여의식-학년별 .....	47
<그림 II-37> 사회참여의식-기타변수별 .....	48
<그림 II-38> 건전한 소비의식-학년별 .....	49
<그림 II-39> 건전한 소비의식-기타변수별 .....	50

## I. 서론

# I. 서론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보호·규제·단속중심’의 소극적인 청소년정책에서 ‘육성·지원중심의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왔다(조영승, 2003). 즉, 1987년에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발달<sup>1)</sup>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청소년발달체제(youth development system) 역시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청소년 발달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집행 및 평가를 위해서는 청소년 발달의 정확한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정책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수립, 추진, 평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청소년 발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관심영역인 청소년발달의 현재 상태와 변동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정책적 개입(intervention)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통계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소년 관련 통계자료 확보의 시작은 우수한 측정속성(measurement properties)을 확보하는 청소년발달지표의 생산에 있다. 청소년지표에 대한 논의에 앞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에 대하여 일반적 차원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는 정부와

---

1)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정책 현장에서는 ‘청소년 발달’보다는 ‘청소년육성’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청소년육성정책과 청소년보호정책, 학교교육정책이 지나치게 분리되어 집행됨으로써 효율적인 청소년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조영승, 2003).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장·발달권을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패러다임으로 청소년정책을 재구성하고,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육성’의 개념을 포괄하면서 청소년보호, 청소년교육을 융합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틀로서 ‘청소년 발달’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공공정책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지표라 함은 사회적 관심 및 그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변화를 측정·보고하는 하나의 계량적 도구이다. 사회지표의 구체적인 역할은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 속에서 변화방향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고, 사회적 상태를 기술하고 사회문제를 규정하는데 도움을 주며, 사회적 추세를 추적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위한 목표설정과 사업의 계획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지표는 현재의 사회 상태와 변동추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며, 나아가 공공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의 달성수준과 변화를 추적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세계 각국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이른바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 이후 사회지표 개발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지표 개발의 동향 속에서 사회체제의 각 하위부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sup>2)</sup>. 본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발달지표의 생산은 이와 같은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의 한 유형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러한 청소년발달지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발달과 관련된 지표 및 통계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청소년발달관련 지표 및 관련통계들은 상호연계 및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비체계적이며 산발적이고, 정책적 관심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된 경우도 많다. 예컨대, 현재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에서 발간되는 청소년관련 지표 및 통계로는 통계청의 청소년통계·한국의 사회지표·사회통계조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OECD 교육지표,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 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수련시설실태조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한국사회조사연구소의 청소년생활통계연보 등이 있다. 그러나 자료간의 상호연계성과 비교기준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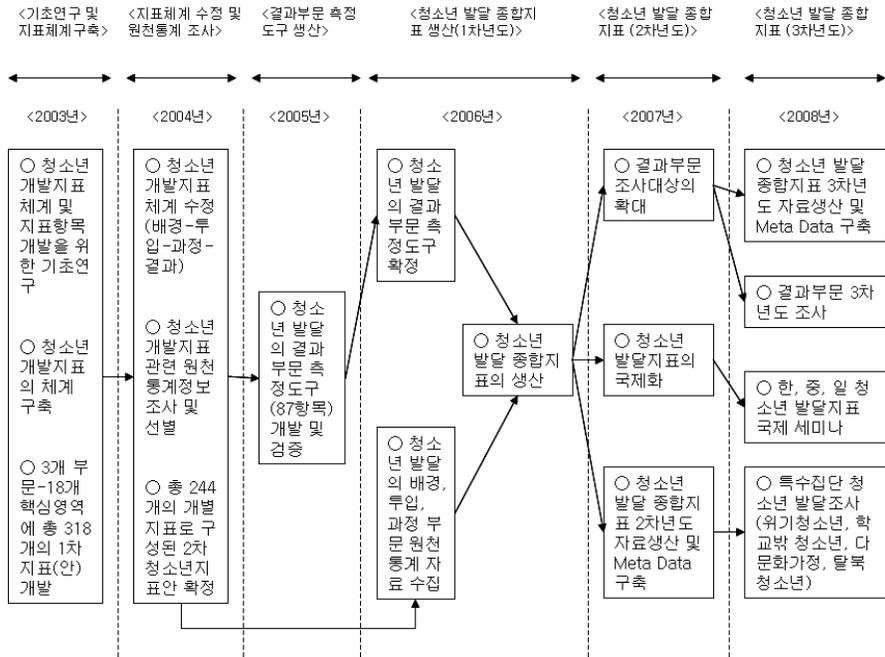
2) 우리나라에서도 1979년부터 매년 사회지표를 작성 발간하고 있으며, 경제지표, 교육지표, 보건지표, 인적자원발달지표 등 각 부문별 지표가 개발되어 작성되고 있다.

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지표·청소년정책평가지표·청소년인권지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보호지표·청소년유해환경평가지표 등은 정책적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지표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이와 같은 청소년발달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11)』에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발달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육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과학화·체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문화관광부, 2003). 이에 따라서 한국청소년개발원(2003,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발달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청소년 발달지표(1차안)를 개발한 바 있다. 2004년에는 2003년의 기초연구를 토대로 한국청소년 발달지표의 구성체계 및 개별지표 항목(총 244개)을 산출하였다.

2005년도 청소년 발달지표 연구는 2004년도에 수행된 『청소년 발달지표 개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한국청소년 발달지표의 결과부문 중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emotional competencies)’, ‘인지적 특성(cognitive competencies)’, ‘사회적 특성(social competencies)’, ‘시민적 특성(civic competencies)’, ‘직업적 특성(vocational competencies)’의 다섯 개 영역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계속해서 2006년에 수행된 『청소년발달지표연구 I』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첫째, 2005년 예비적 수준에서 개발된 청소년발달 결과 부문의 측정도구를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확정하고 1차년도 조사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였고 둘째, 2004년 연구를 통하여 구성된 청소년발달지표의 종합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 발달의 배경, 투입, 과정의 기존 통계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청소년발달종합지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지난 4년 그리고 이후의 한국청소년발달지표 연구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I -1] 청소년발달 종합지표 연구 흐름도

2007년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 II』 연구는 2006 수행된 『한국청소년개발지표조사I』의 후속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2006년 연구는 크게 청소년발달지표 결과 부문 측정지표의 확정과 조사 자료의 생산 그리고 청소년발달종합지표의 생산으로 나뉘었다. 2007년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 II』 연구는 2006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첫째, 2006년도에 수행되었던 1차년도 조사는 당시 연구조건의 한계로 인하여 전국 고1.2 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현재 법정 청소년 연령대가 9세에서 24세까지임을 고려할 때 분명 연구결과의 일반화 측면에서 제약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지적을 토대로 하여 2007년에는 보다 광범위한 청소년 집단 조사를 통하여 명실상부하게 한국 청소년을 아우를 수 있는 청소년 발달의 결과 부문 내용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2007년 연구에서는 중 1.2.3/ 고1.2.3 청소년들로 조사대상을 대폭 넓혀 한국청소년들의 발달 결과를 총체적으로 알아내고자 하였다.

둘째, 2007년 연구는 2006년 국가통계자료들을 중심으로 생산된 2006 청소년발달종합지표에 대한 2차년도 자료를 생산하여 청소년발달지표자료에 대한 시계열적 축적을 피하고자 하였다.

## Ⅱ. 본론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 II. 본론

### 1. 조사개요

#### 1) 설문구성(questionnaire construction)

이 연구는 2006년도에 이은 2차년도 지표 연구이기 때문에 조사내용 및 지표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다. 설문구성에 있어 올해 연구의 특징은 첫째, 2006년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청소년행복.역량지수 개발연구”의 내용 중 청소년행복지수 산출을 위한 세부 문항을 추가 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서 올해 연구는 청소년 발달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한 2차년도 자료와 동시에 2006년에 이은 2007 한국청소년행복지수가 산출되었다. 2007 조사 내용의 두 번째 특징은 아이젠크의 성격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인지적 발달과정에서 외향성과 내향성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7년 조사를 위한 설문은 본 조사 이전, 서울시내 중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이 이루어 졌다. 중학교 1학년들을 예비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예비조사 자체의 목적이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설문이해력과 그에 따른 응답속도를 확인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예비조사 결과 우려했던 대로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설문내용의 이해와 응답부분에 문제를 나타내었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진 회의 결과, 조사의 내용을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알기 쉬운 단어로 질문을 교체하고, 조사원 교육 시 조사장 분위기를 유지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설문의 중점내용인 청소년발달의 각 하위영역과 행복지수 측정도구 이외에도 다양한 분석결과 및 타당화(validations) 시도를 위해 학생의 성적, 교내외 활동, 가족관계, 계층귀속감, 종교, 비행, (학교)생활만족도 등이 설문에

추가적으로 조사에 포함되었다.

## 2) 표집(sampling)

이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이다. 이들을 표집하기 위해 일단 중/고등학교를 먼저 표집하고 다시금 해당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표집하는 2단계 표집전략을 사용하였다. 먼저 고등학교를 표집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소장중인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를 표집틀(sampling frame)로 활용하였는데, 모두 세 가지 표집기준—학교유형별(일반계, 실업계), 성별(남고, 여고, 남녀공학), 지역별(7개 광역시와 경기, 충청, 강원, 전라, 경상도로 구분)—을 동원하여 총 30개 고등학교를 재학생수 기준 인구비례(PPS)로 선정하였다. 연이어, 선정된 각 학교에서 1/2/3학년 각 1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였고, 선정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전수조사하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학급선정에 있어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학교별 조정이 부분적으로 시도되었으며,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학교의 성격이나 그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5951명의 학생들이 조사되었는데, 표집된 학생들의 학교유형별, 성별, 학년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1> 응답자 분포

	구분	빈도	%
성별	여학생	2831	47.6
	남학생	3120	52.4
학년	중1	1038	17.4
	중2	994	16.7
	중3	1045	17.6
	고1	986	16.6
	고2	933	15.7

	구분	빈도	%
	고3	955	16.0
학교구분	인문계고	2499	42.0
	실업계고	375	6.3
	중학생	3077	51.7
합계		5951	100.0

### 3) 현지조사(fieldworks)

현지조사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SRC: Survey Research Center)에 의해 수행되었다. 동 센터는 학술적 사회조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조사기관으로서, 방법론적으로 엄정한 전국표집조사(national sample surveys) 및 국제협력조사(international collaborative surveys)로 정평이 난 조사 및 연구 기관이다.

실제 조사를 위해서는 서베이리서치센터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른바 <전국협력조사팀>이 동원되었는데, 이 조사팀은 사회조사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실습 경험을 보유한 전국 십여 개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조사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금번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수도권 인근 수련원에서 2007년 4월 조사의 목적 및 세부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는 조사원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조사원교육 전에 동 센터에서는 표집된 각 학교의 책임자들을 사전에 개별적으로 전화로 접촉해서 조사 협조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전화 접촉 과정에는 동 센터가 섭외한 전문컨택요원이 동원되었으며, 이 요원은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의 협조공문을 팩스 등으로 송부해가면서 협조 요청 및 일정 조정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10개 학교(서울 5개교, 경기 2개교, 전북 1개교, 경북 1개교, 부산 1개교)는 학사일정 등 교내 사정을 이유로 조사협조의 어려움을 토로하였고, 이러한 학교들에 대해서는 학교 표집의 전체 과정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사한 성격의 인접 학교로 대체하는 조

정 및 시도가 이루어졌다.

조사원교육을 이수한 조사원들은 각자 맡은 학교를 일주일 이내에 방문하여 학교담당자(교장, 교감 등)를 만난 후 해당 학급을 찾아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조사팀은 2인 1조로 이루어져 2명의 조사원이 한 학교를 일시에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들 팀은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사전에 준비한 조사협조공문을 제시하고, 학교담당자 및 학교교사, 그리고 응답대상 학생들 각각에게 소정의 답례품(incentives)을 전달한 후 조사에 임하였다.

설문을 기입하는 방식은 자기기입식(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s)을 사용하였다. 자기기입 응답이 이루어질 경우 응답의 완결성(response completeness)이 저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두 가지 보정기제를 구비하였는데, 그 하나는 조사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담당교사가 현장에 위치해서 조사 과정을 주도적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조사원들이 조사시간 내내 여러 학생들의 응답내용을 즉석에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조치한 것이다. 이러한 보정기제는 응답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집된 자료의 질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조사원교육을 통해 각 조사원은 조사가 끝나는 즉시 모든 설문지를 서베이리서치센터로 즉각적으로 우송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동 센터에 우송된 설문지들은 연구진에 의한 편집(editing), 코딩(coding), 펀칭(punching) 등 일련의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서 신속히 전산화되었다.

## 2. 조사 결과

### 1) 정의적 특성

한국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은 “자아개념”, “행복감<sup>3)</sup>”, 그리고 “목표지향성”

3) 2007년에 수행된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 II」에는 2006년 “한국청소년행복...역량지수개발연구”에 의해 개발된 6개 영역 40개 세부항목으로 이루어진 행복지수 조사 또한 포함되었다. 위의 “행복감”은 2003년부터 진행되어온 한국청소년발달지표사업의 일부

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2006년에 이어 2007년에 한국청소년의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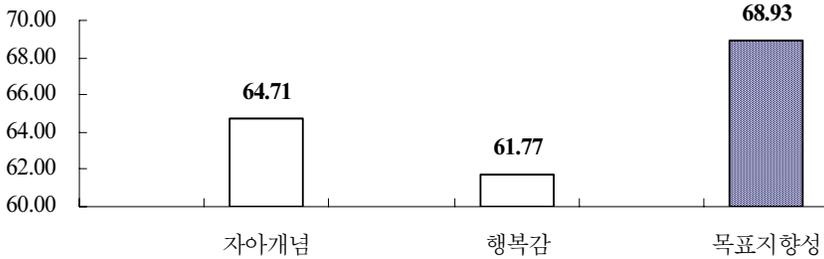
<표 II-2> 정의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정의적 특성	자아 개념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 한다
		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 한다
		5.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한다
	행복감	6. 나는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 한다
		7.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8.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목표 지향성	9. 나는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10.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11. 나는 지금 무엇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영역 가운데 목표지향성(68.93) 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자아개념 = 64.71, 행복감 = 6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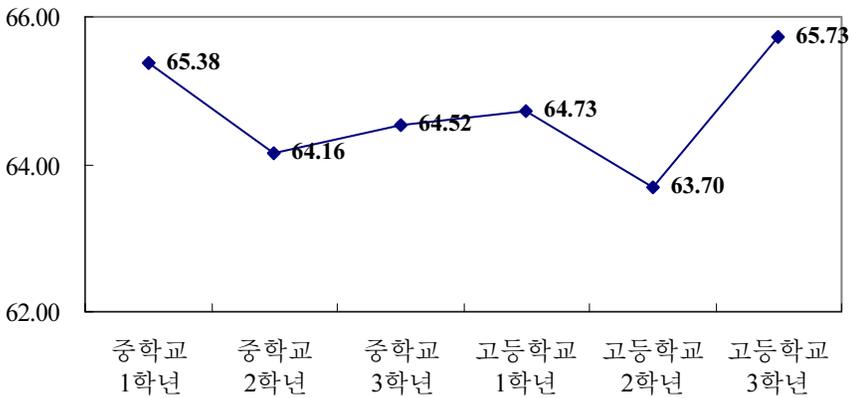
로서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사결과의 시계열적 비교를 위하여 2007년에도 조사되었긴 하나 한국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해서는 이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공동 작업을 통해 제출될 “한국청소년행복지수”를 참조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그림 II-1> 정의적 특성-하위차원별



각 영역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자아개념”은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가운데 고3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고3 = 65.73) 각 연령대별 차이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이미 중학교 1학년의 연령에서 충분히 발달되어 이후 고등학교 3학년 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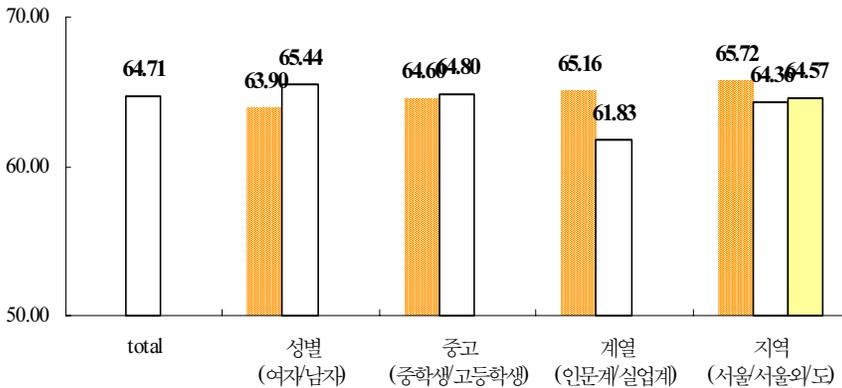
<그림 II-2> 자아개념-학년별



“자아개념”의 발달정도를 성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중/고별,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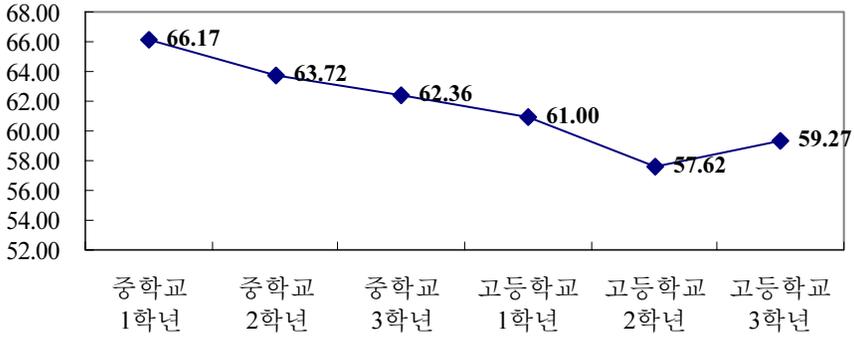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자아개념 발달 정도를 보였으며(남 = 65.44, 여 = 63.90).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에 비해 자아개념 발달 정도가 높았으나(고등학생 = 64.80, 중학생 = 64.60) 차이는 크지 않았다.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연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인문계 = 65.16, 실업계 = 61.83),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 외 광역시 지역이나 도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자아개념 점수를 보였다(서울지역 = 65.72, 서울외광역시 = 64.36, 도지역 = 64.57).

<그림 II -3> 자아개념-기타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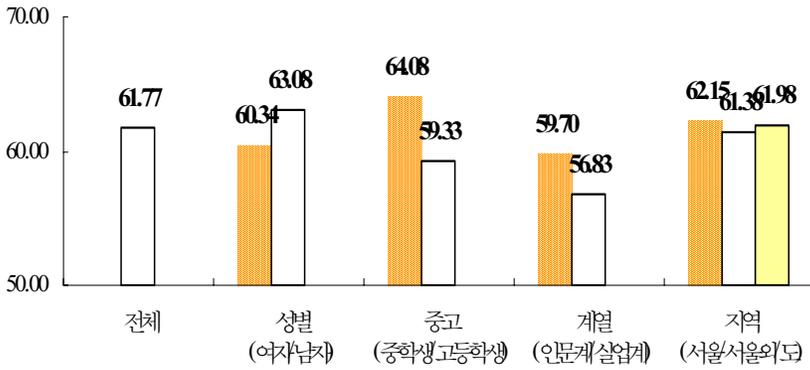
청소년의 행복감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행복감”은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가운데 중 1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1 = 66.17),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고 3 청소년들에서는 약간 상승하는(고3 = 59.27)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 청소년의 행복감은 중학교 1학년의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들이 행복감은 감소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입시에 대한 부담이나 장래에 대한 걱정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II-4> 행복감-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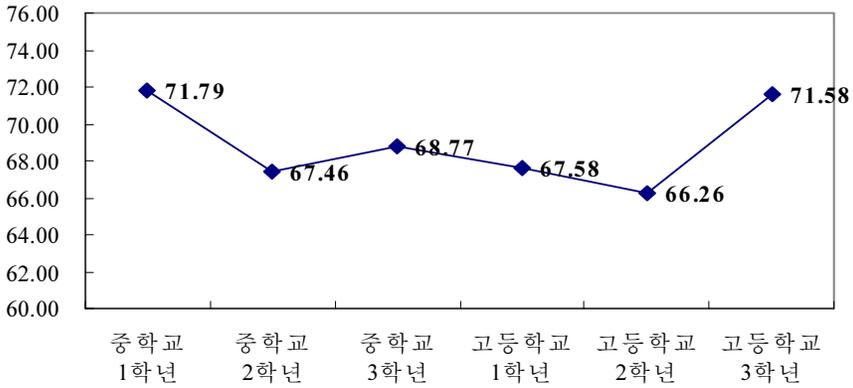
“행복감”의 발달정도를 성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중/고별,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행복감 정도를 보였으며(남 = 63.08, 여 = 60.04). 학교 유형별로 보면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행복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중학생 = 64.00, 고등학생 = 59.40).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연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은 행복감 정도를 보였고(인문계 = 59.70, 실업계 = 56.83),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 외 광역시 지역이나 도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행복감 점수를 보였다(서울지역 = 62.15, 서울외광역시 = 61.38, 도지역 = 61.98).

<그림 II -5> 행복감-기타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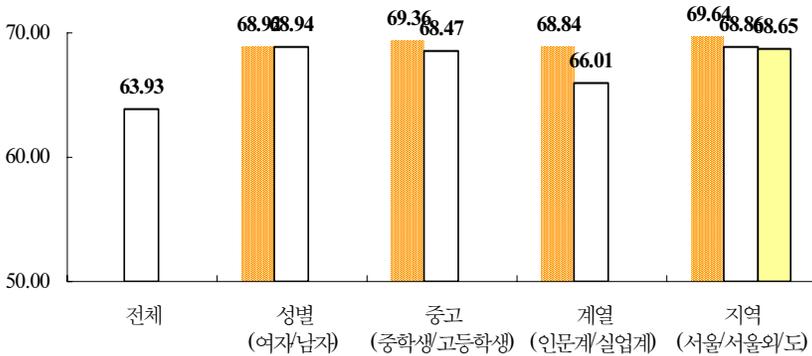
정의적 특성 가운데 “청소년의 목표지향성”을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목표지향성”은 앞에서의 “행복감”과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 가운데 중 1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1 = 71.79),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고 3 청소년들에서는 약간 상승하는(고3 = 71.58)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청소년의 목표지향성은 중학교 1학년의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들의 목표지향성은 감소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림 II -6> 목표지향성-학년별



“목표지향성”의 발달정도를 성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중/고별,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행복감 정도를 보였으나(남 = 68.94, 여 = 68.92)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목표지향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중학생 = 69.40, 고등학생 = 68.40).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연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은 목표지향성 정도를 보였고(인문계 = 68.84, 실업계 = 66.01),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 외 광역시 지역이나 도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목표지향성 점수를 보였으나(서울지역 = 69.64, 서울외광역시 = 68.86, 도지역 = 68.85), 이 역시 큰 차이는 아니었다. .

<그림 II-7> 목표지향성-기타변수별



한국 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 발달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정의적 특성의 세 가지 하위영역 가운데, 목표지향성의 발달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청소년의 자아개념과 목표지향성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유사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중학교 1학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다가 고등학교 2학년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러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정의적 특성의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 중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그 밖의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발달의 정도를 보여주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중학생 청소년들이 고등학생 청소년들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높은 발달의 정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라 할 것이다.

## 2) 인지적 특성

인지적 특성은 ‘인지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갖추어야 할 능력, 재능, 태도의 복합체’로 정의되며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 학습준비도 등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5).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의 하위영역 및 세부지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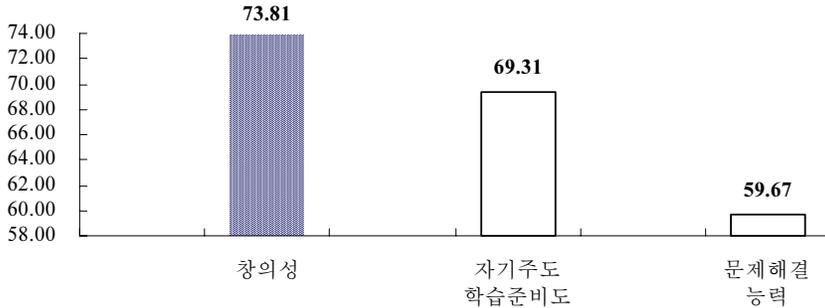
〈표 II-3〉 인지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인지적 특성	창의성	1. 나는 윗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2.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한다.
		3.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4.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5.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6.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7.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8. 나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 있다.
	문제해결 능력	9.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10.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11.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12.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한다.
		13. 나는 문제해결 후 문제의 해결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되돌아 본다.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의 세 가지 영역 가운데 창의성(73.81)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자기주도 학습 준비도 = 69.31, 문제해결능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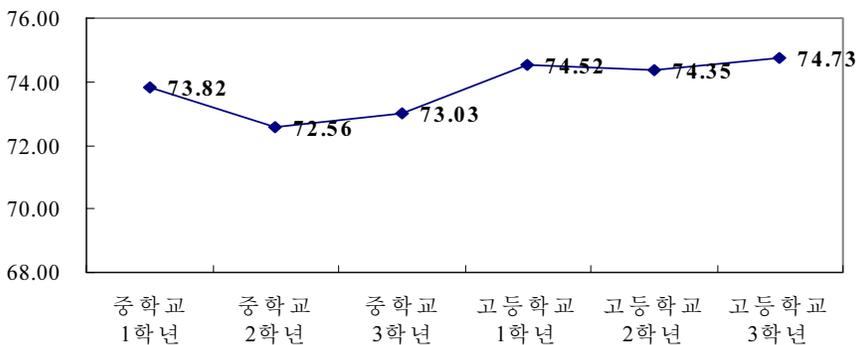
59.67). 특히 문제해결능력은 나머지 두 개 하위영역에 비해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림 II-8> 인지적 특성-하위차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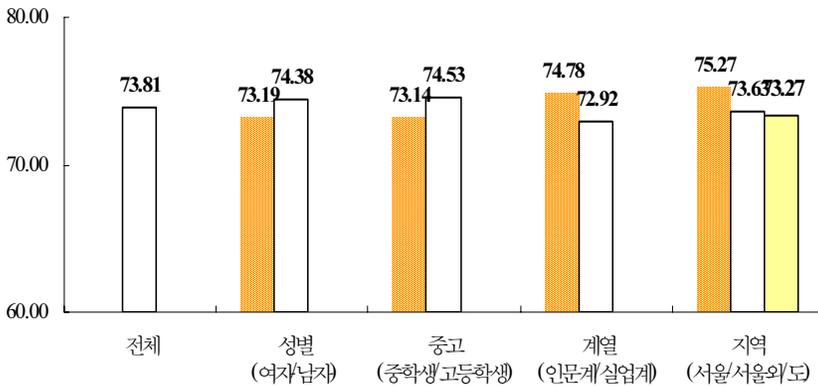
각 영역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창의성”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가운데 고3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고3 = 74.73) 각 연령대별 차이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청소년의 창의성은 자아개념은 이미 중학교 1학년의 연령에서 충분히 발달되어 이후 고등학교 3학년 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 II-9> 창의성-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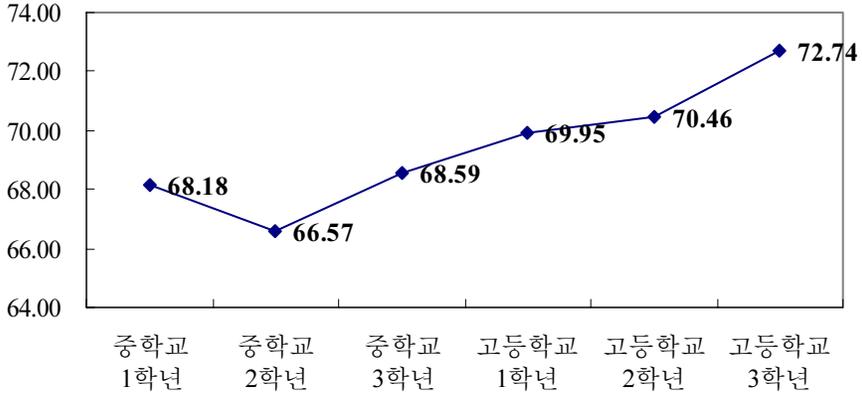
“창의성”의 발달정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자아개념 발달 정도를 보였으며(남 = 74.53, 여 = 73.14).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에 비해 자아개념 발달 정도가 높았으나(고등학생 = 74.78, 중학생 = 72.92) 차이는 크지 않았다.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연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인문계 = 74.78, 실업계 = 72.92),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 외 광역시 지역이나 도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자아개념 점수를 보였다(서울지역 = 75.27, 서울외광역시 = 73.63, 도지역 = 73.27). 그러나 모든 집단별 비교에서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림 II-10〉 창의성-기타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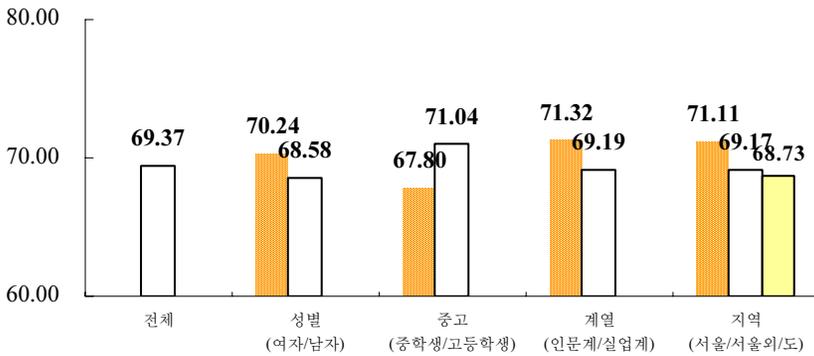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가운데 고3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고3 = 72.74), 중2 청소년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중 2 = 66.57). 전체적으로 연령대의 증가와 함께 완만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11〉 자기주도학습준비도-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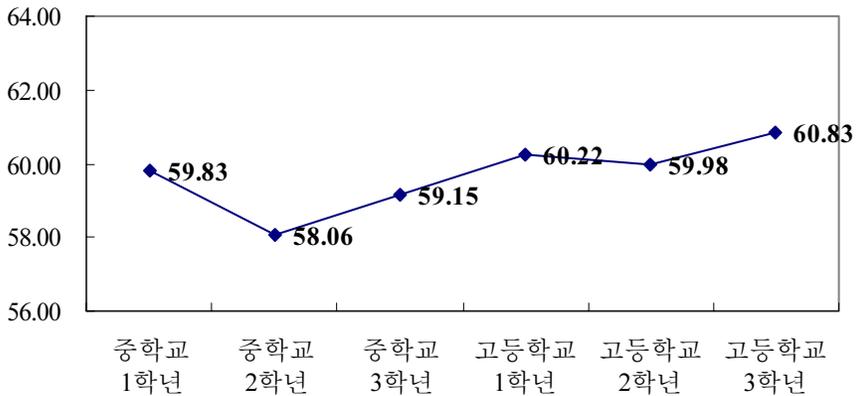
“자기주도학습준비도”의 발달정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자기주도학습준비정도를 보였으며(여 = 70.24, 남 = 68.58).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에 비해 자기주도학습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고등학생 = 71.04, 중학생 = 67.80).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연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은 자기주도학습준비도를 보였고(인문계 = 71.32, 실업계 = 69.19),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 외 광역시 지역이나 도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자기주도학습준비도 점수를 보였다(서울지역 = 71.11, 서울외 광역시 = 69.17, 도지역 = 68.73).

<그림 II-12> 자기주도학습준비도-기타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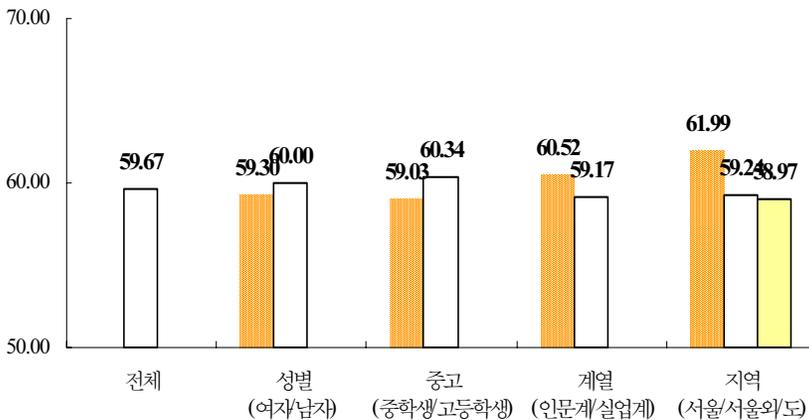
인지적 특성 가운데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을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문제해결능력”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가운데 고3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고3 = 60.83), 중2 청소년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중 2 = 59.67). 전체적으로 연령대의 증가와 함께 완만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연령별로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림 II-13> 문제해결능력-학년별



“문제해결능력”의 발달정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보였으나(남 = 60.00, 여 = 59.30)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에 비해 목표지향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고등학생 = 60.34, 중학생 = 59.03).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은 문제해결능력 정도를 보였고(인문계 = 60.52, 실업계 = 59.17),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 외 광역시 지역이나 도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문제해결능력 점수를 보였으나(서울지역 = 61.99, 서울외광역시 = 59.24, 도지역 = 58.97), 이 역시 큰 차이는 아니었다.

<그림 II-14> 문제해결능력 -기타변수별



한국 청소년들의 인지적 특성 발달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인지적 특성의 세 가지 하위영역 가운데 창의성의 발달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청소년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유사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완만한 증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로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 즉 한국 청소년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은 이미 중1 단계에서 충분한 발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 청소년의 자기주도학습준비도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인지적 역량이 세가지 특성 모두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사회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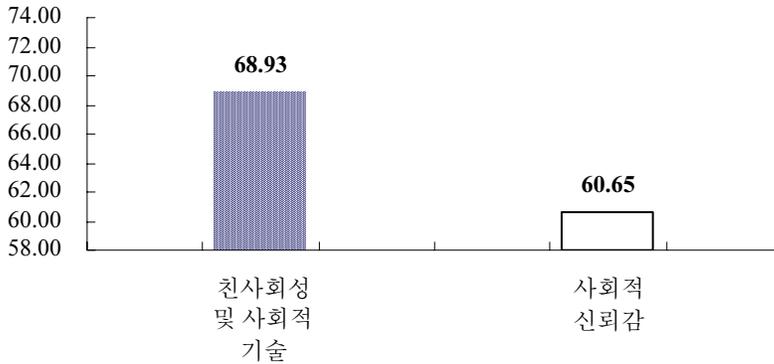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이란 ‘청소년들이 사회적 신뢰감을 형성하고, 친사회적 성향으로 사회적 적응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향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회적 특성은 태도차원으로서의 사회적 신뢰감과 행위 능력차원으로서의 사회적 기술 및 친사회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06년 개발된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의 하위영역 및 세부지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표 II-4〉 사회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사회적 특성	사회적 신뢰감	1.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2.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
		3.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4.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	5. 나는 아무리 낯선 사람에게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
		6. 나는 친구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7. 나는 친구들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8.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
		9.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10.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11. 나는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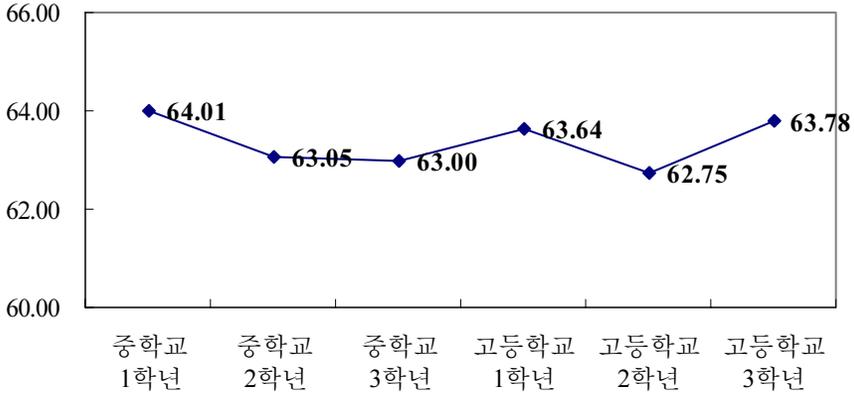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의 두 가지 하위영역 가운데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이(68.93) 청소년의 사회적 신뢰감에(60.65)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15> 사회적 특성-하위차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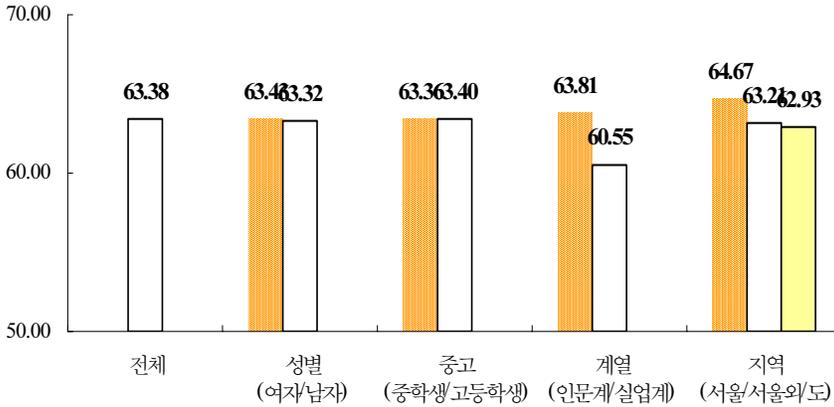
각 영역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은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가운데 중1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중1 = 64.01) 각 연령대별 차이는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즉 청소년의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은 이미 중학교 1학년의 연령에서 충분히 발달되어 이후 고등학교 3학년 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사회성이 청소년의 인성 (personality)의 한 부분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안정적 결과는 이해 가능하다.

<그림 II-16>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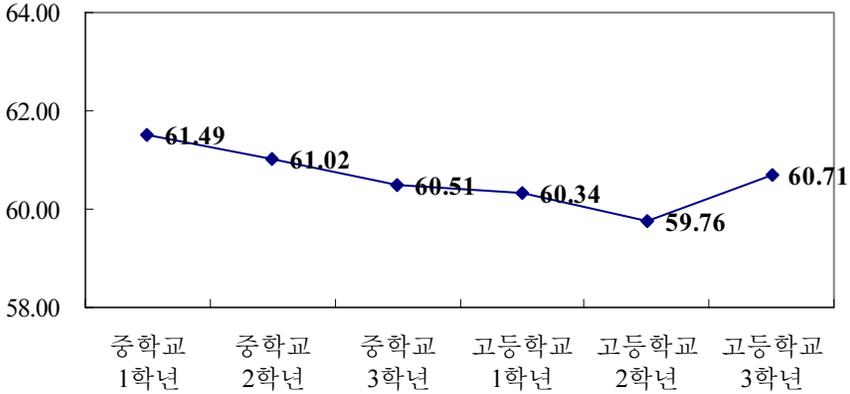
“친 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의 발달정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과 중/고별은 집단별로 연령별 변화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남 = 63.43, 여 = 63.32; 중학생 = 63.36, 고등학생 = 63.40).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연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인문계 = 63.81, 실업계 = 60.85),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 외 광역시 지역이나 도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자아개념 점수를 보였으나 점수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서울지역 = 64.67, 서울외광역시 = 63.21, 도지역 = 62.93).

<그림 II-17> 친사회성 및 사회적기술-기타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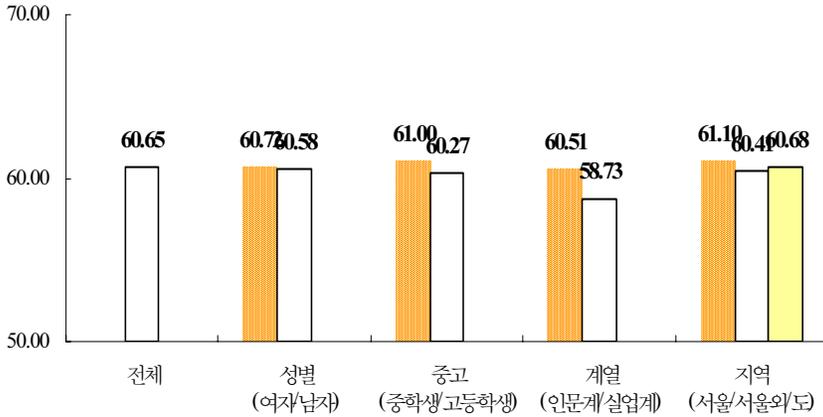
다음은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 가운데 사회적 신뢰감에 정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청소년의 “사회적 신뢰감”은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가운데 중 1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1 = 61.49),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고 3 청소년들에서는 약간 상승하는(고3 = 60.71)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신뢰감은 중학교 1학년의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한 유형으로서 사회적 신뢰감은 전체 사회의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필수적인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청소년의 사회적 신뢰감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은 우려할 만하다.

<그림 II-18> 사회적 신뢰감-학년별



“사회적 신뢰감”의 발달정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과 중/고별은 집단별로 연령별 변화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남 = 60.58, 여 = 60.72; 중학생 = 61.00, 고등학생 = 60.27).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연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인문계 = 60.51, 실업계 = 58.73),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 외 광역시 지역이나 도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자아개념 점수를 보였으나 점수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서울지역 = 61.10, 서울외광역시 = 60.40, 도지역 = 60.68).

<그림 II-19> 사회적 신뢰감-기타변수별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적 특성 발달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이 사회적 신뢰감에 비해 더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은 인성의 한 부분으로서 중1에서 고3까지 매우 안정적인 발달의 모습을 보였다. 셋째, 사회적 신뢰감이 경우, 비록 폭은 미약하나 연령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 청소년의 사회적 특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영역 모두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높은 발달의 정도를 보였다.

#### 4) 진로 및 직업 특성

청소년들의 진로·직업 특성이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의 형성과 실질적으로 진로탐색이나 준비를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여부(한국청소년개발원, 2005)’를 의미한다. 2006년 개발된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특성의 하위영역 및 세부지표 문항들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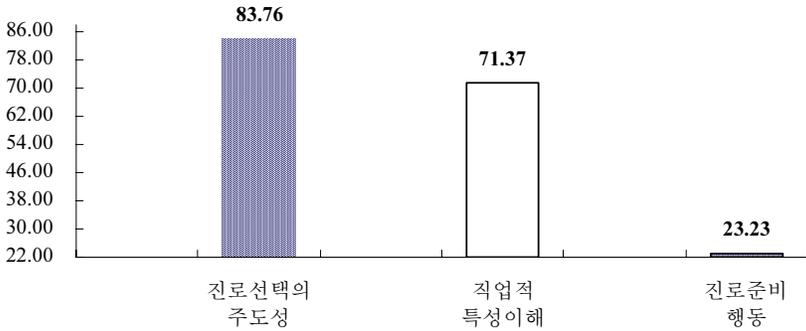
<표 II-5> 진로 및 직업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진로 및 직업 특성	진로 선택의 주도성	1.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할 것이다.
		2. 나의 진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3.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
	직업적 특성이해	4.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안다
		5.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6. 나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진로준비 행동	7. 나는 지난 1년 동안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8. 나는 지난 1년 동안 관심 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9. 나는 지난 1년 동안 학교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10. 나는 지난 1년 동안 방과 후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체험을 해 본 적이 있다.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특성의 세 가지 하위 영역 가운데 진로선택의 주도성이 다른 두 영역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발달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진로선택의 주도성 = 83.76, 직업적 특성 이해 = 71.37, 진로준비 행동 = 23.23). 특히 진로준비 행동은 23.23에 그쳐 한국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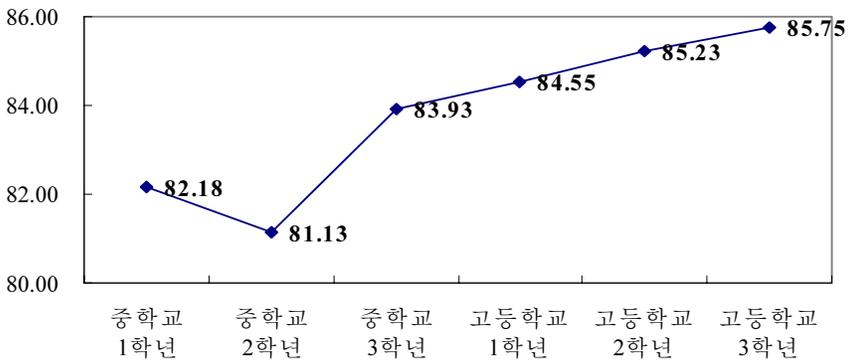
진로에 대해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정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II-20> 진로 및 직업특성-하위차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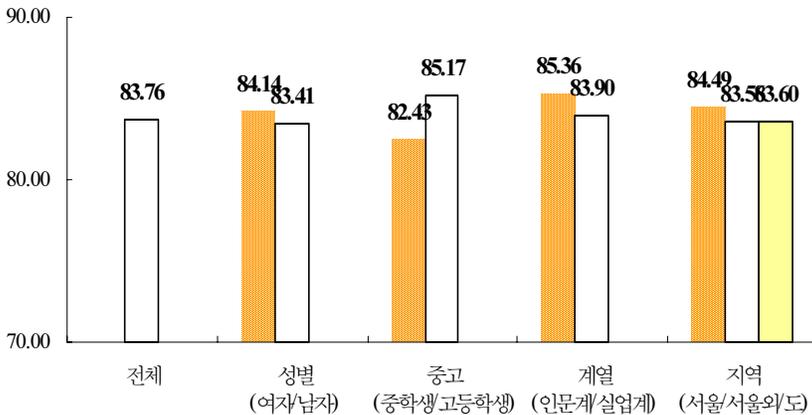
각 영역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진로선택의 주도성”은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가운데 고3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고3 = 85.75) 중 2 청소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중2 = 81.13). 전체적인 변화의 모습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진로선택의 주도성 정도는 중학교 1학년의 연령에서 충분히 발달되어 이후 고등학교 3학년 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 II-21> 진로선택의 주도성-학년별



“진로선택의 주도성”의 발달정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자아개념 발달 정도를 보였으나(남 = 83.41, 여 = 84.14).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에 비해 진로선택 주도성 발달 정도가 높았다(고등학생 = 85.17, 중학생 = 82.43).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연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인문계 = 85.36, 실업계 = 83.90),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 외 광역시 지역이나 도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자아개념 점수를 보였다(서울지역 = 84.49, 서울외광역시 = 83.56, 도지역 = 8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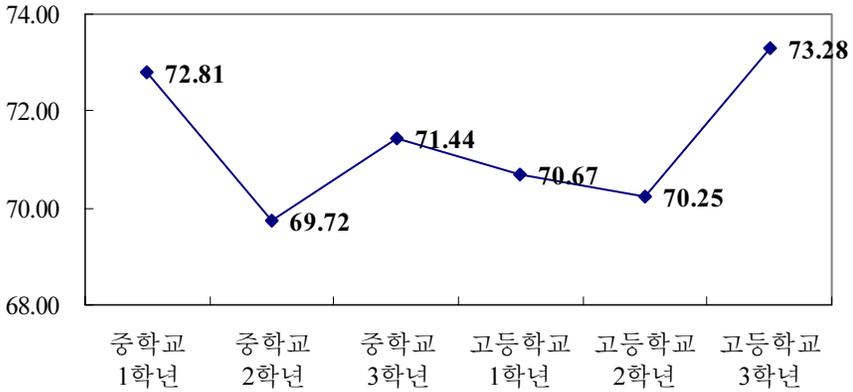
<그림 II-22> 진로선택의 주도성-기타변수별



청소년의 직업적 특성의 이해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직업적 특성 이해”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가운데 고 3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중 2 청소년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고 3 = 73.28, 중2 = 69.72) 전체적으로 볼 때 연령의 변화와 함께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의 직업적 특성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이미 중학교 1학년 시기에서 충분히 발달하여 고 3에 이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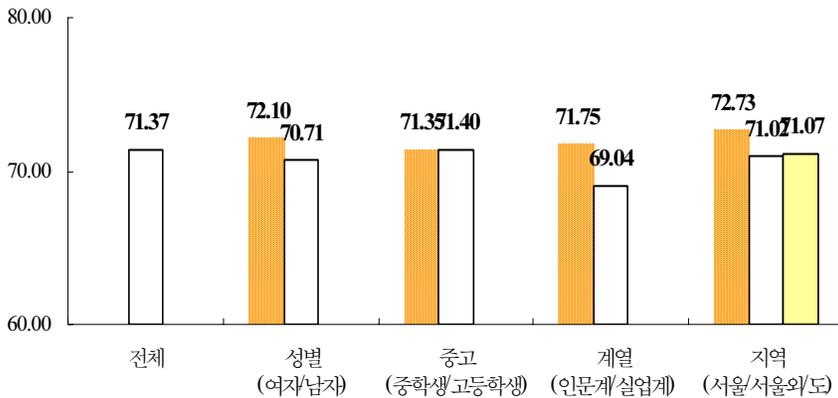
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23> 직업적 특성이해-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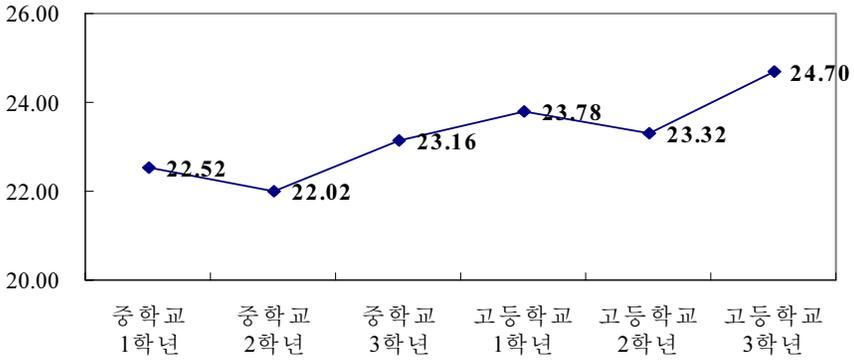
한국 청소년들의 “직업적 특성 이해”의 발달정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 (고등학생만 해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직업적 특성의 이해 정도를 보였으며(여 = 72.10, 여 = 70.71).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에 비해 직업적 특성의 이해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고등학생 = 71.40, 중학생 = 71.35) 차이는 크지 않았다.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연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은 직업적 특성 이해 정도를 보였고(인문계 = 71.75, 실업계 = 69.04),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서울 외 광역시 지역이나 도지역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행복감 점수를 보였다(서울지역 = 72.73, 서울외광역시 = 71.02, 도지역 = 71.07).

<그림 II-24> 직업적 특성이해-기타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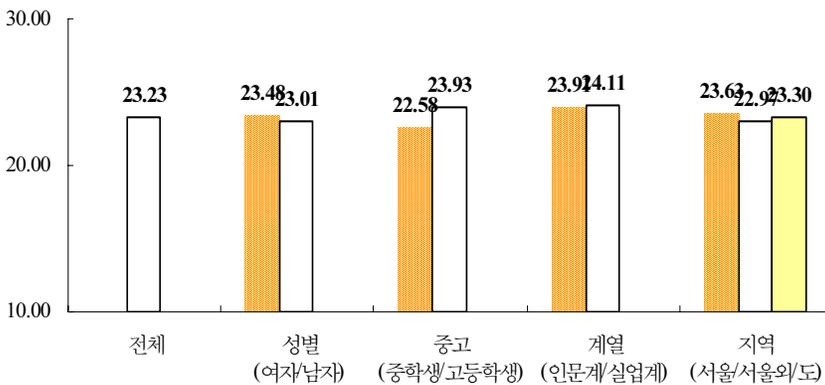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적 특성 가운데 “진로준비행동”을 집단별로 살펴본다. “진로준비행동”은 조사 대상 가운데 고 3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3 = 24.70),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증가의 정도는 크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대에서 완만한 증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청소년의 진로준비 행동의 정도는 중 1에서 고 3의 연령대에 이르기 까지 매우 낮은 수준의 발달 정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25> 진로준비행동-학년별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준비행동”의 발달정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나 모든 집단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남자 = 23.41, 여자 = 23.48; 중학생 = 22.58, 고등학생 = 23.93; 인문계 = 23.91, 실업계 = 24.41; 서울지역 = 72.73, 서울외광역시 = 71.02, 도지역 = 71.07).

<그림 II-26> 진로준비행동-기타변수별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적 특성 발달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진로 및 직업적 특성의 세 가지 하위영역 가운데, 진로선택의 주도성이 가장 높은 발달 정도를 보였으며 진로준비 행동은 매우 큰 차이로 가장 낮은 수준의 발달 정도를 보였다. 둘째, 진로 및 직업적 특성의 세 가지 하위영역 모두 중1에서 고3에 이르는 동안 완만한 발달 증가의 모습을 보였으나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셋째, 진로선택의 주도성과 직업적 특성에 대한 이해 모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인문계 고등학생이,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높은 발달의 수준을 보였다.

## 5) 시민적 특성

2005년 연구(한국청소년개발원, 2005)에서 언급되었다 시피, 다른 영역에 비해 시민적 영역은 개념자체의 추상적이고 가변적인 성격<sup>4)</sup>으로 인해 시민의식의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하위요인을 추출해내는 작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었다. 전문가 의견조사와 연구진 협의를 거쳐 2006년에 확정된 청소년의 시민적 특성 하위영역 및 세부지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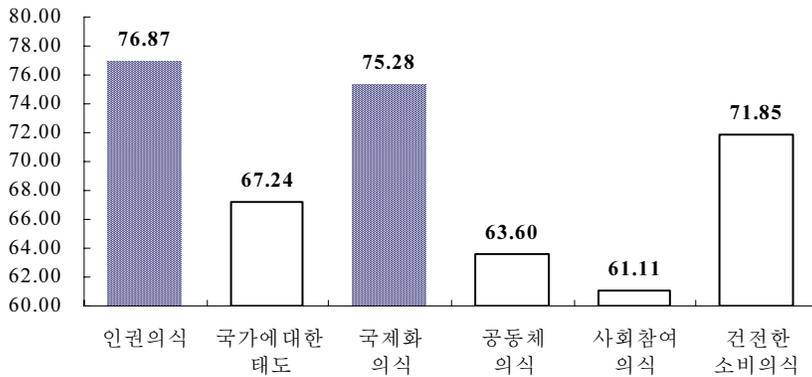
4) 여기서 “가변적”이라 함은 시대와 장소 및 상황에 따라 “올바른”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뀔 수 있으며 하위요인들 간의 이념적, 도덕적 충돌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표 II-6>시민적 특성의 하위차원 및 측정문항

시민적 특성	인권 의식	1.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
		3.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수준 이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에 대한 태도	5.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6.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7.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국제화 의식	8. 외국의 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9. 외국어 구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	10.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11. 나는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사회 참여 의식	12.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13.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견서 보내기)
		14.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15.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 (아르바이트 등)
		16.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 (청소년음악의 밤, 박물관 견학 등)
	건전한 소비 의식	17. 나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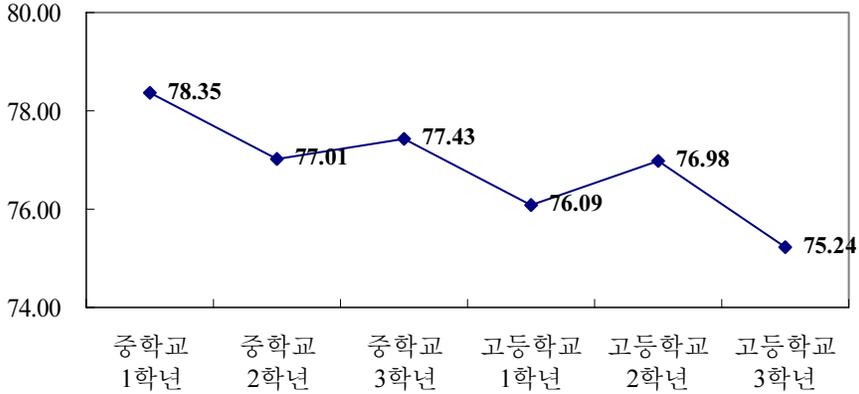
총 여섯 가지 하위 영역 가운데 인권의식과 국제화 의식이 다른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다(인권의식 = 76.87, 국제화 의식 = 75.28). 이에 반해 공동체 의식과 사회참여 의식은 낮은 점수를 보였다(공동체 의식 = 63.60, 사회참여 의식 = 61.11). 국가에 대한 태도와 건전한 소비의식은 각각 67.24와 71.85로 나타났다.

<그림 II-27> 시민적 특성-하위차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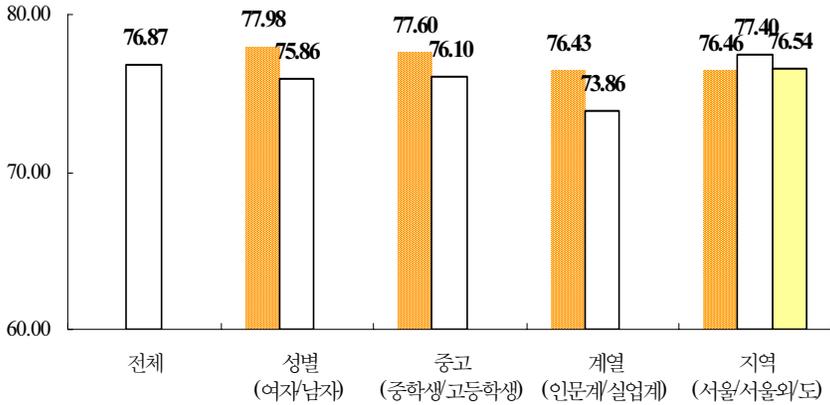
각 영역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인권의식”은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가운데 중1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중1 = 78.35)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령대별 감소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즉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이미 중학교 1학년의 연령에서 충분히 발달되어 이후 고등학교 3학년 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할 수 있다.

<그림 II-28> 인권의식-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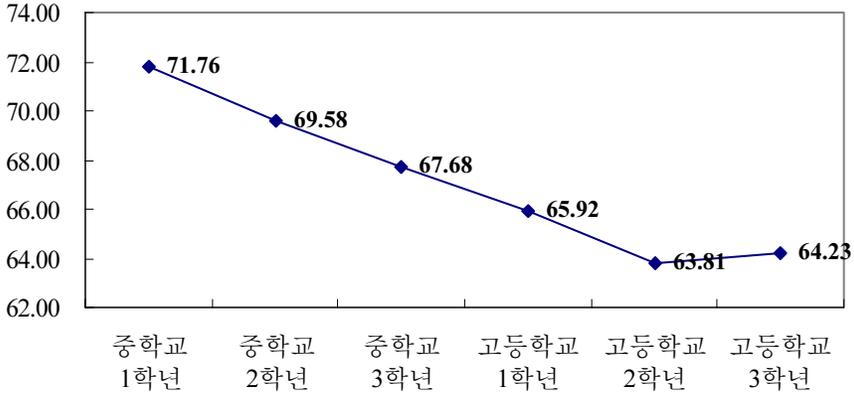
“인권의식”의 발달정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인권의식 발달 정도를 보였으며(여 = 77.98, 남 = 75.86). 학교 유형별로 보면 오히려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인권의식 발달 정도가 높았으나(중학생 = 77.60, 고등학생 = 76.10) 차이는 크지 않았다.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인문계 = 76.43, 실업계 = 73.86), 지역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서울지역 = 76.46, 서울외광역시 = 77.40, 도지역 = 76.54).

<그림 II-29> 인권의식-기타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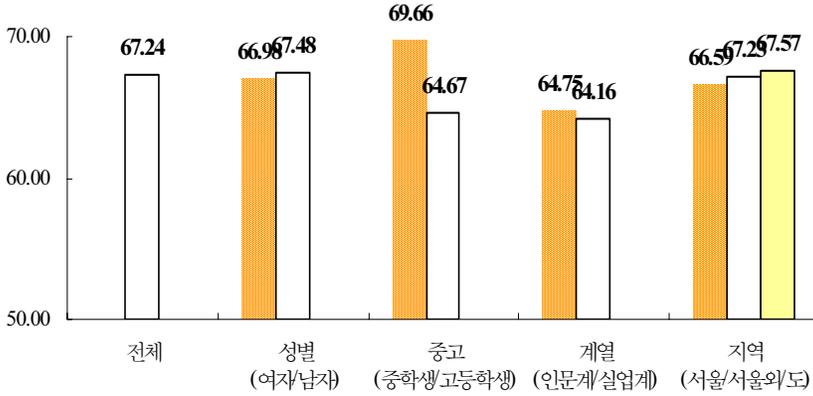
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국가에 대한 태도”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가운데 중 1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1 = 71.76),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고 3 청소년들에서는 약간 상승하는(고3 = 64.23)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 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태도는 중학교 1학년의 연령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일관되게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30> 국가에대한 태도-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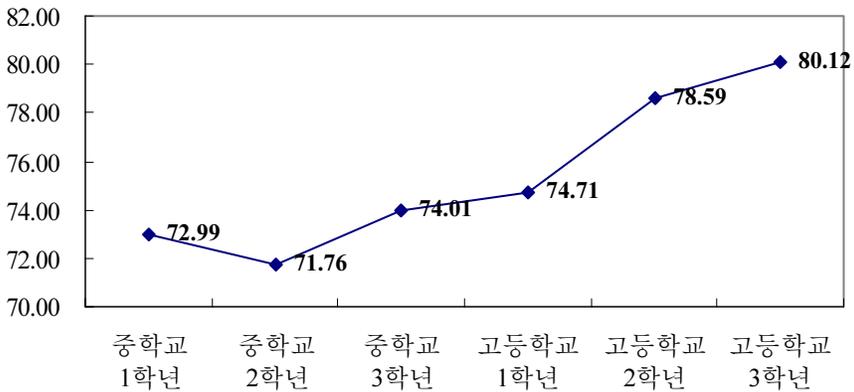
“국가에 대한 태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국가에 대한 태도를 보였으나(남 = 67.48, 여 = 66.98)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인 국가에 대한 태도를 보였다(중학생 = 69.66, 고등학생 = 64.67).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긍정적인 국가에 대한 태도를 보였으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인문계 = 64.75, 실업계 = 64.16),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서울지역 = 66.59, 서울외광역시 = 67.23, 도지역 = 67.57).

<그림 II -31> 국가에대한 태도-기타변수별



청소년의 시민적 특성 가운데 “국제화의식”을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국제화 의식”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고3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고3 = 8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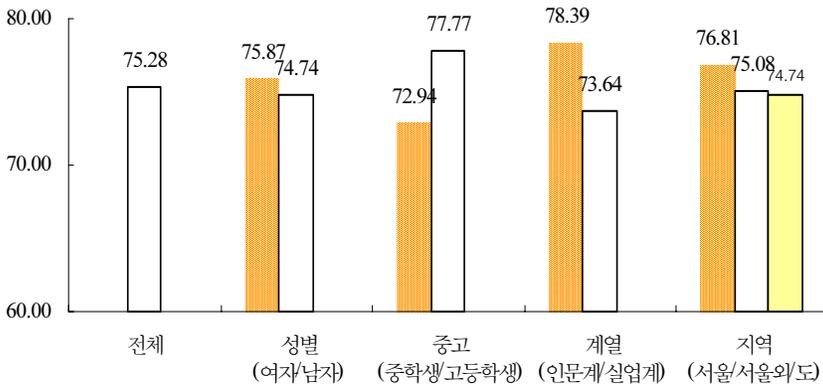
<그림 II -32> 국제화의식-학년별



청소년의 “국제화의식”의 발달정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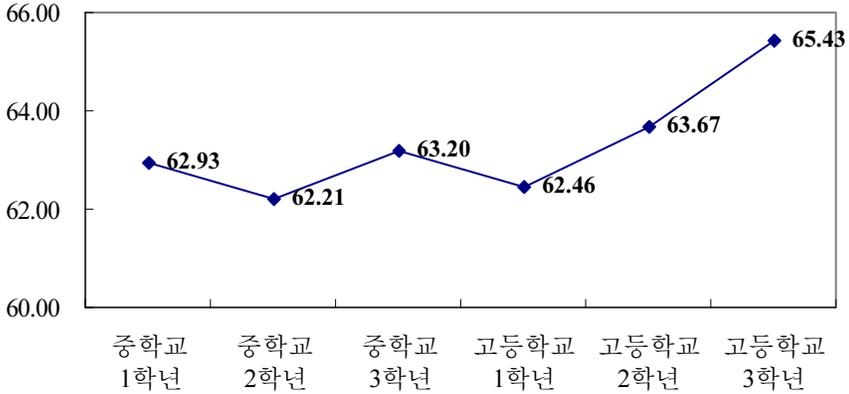
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국제화 의식을 보였다(남자 = 74.74, 여 = 75.87).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국제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학생 = 72.94, 고등학생 = 77.77).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연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은 국제화 의식을 보였고(인문계 = 78.39, 실업계 = 73.64),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들의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국제화 의식을 보였다(서울지역 = 76.81, 서울외광역시 = 75.08, 도지역 = 74.74).

<그림 II-33> 국제화의식-기타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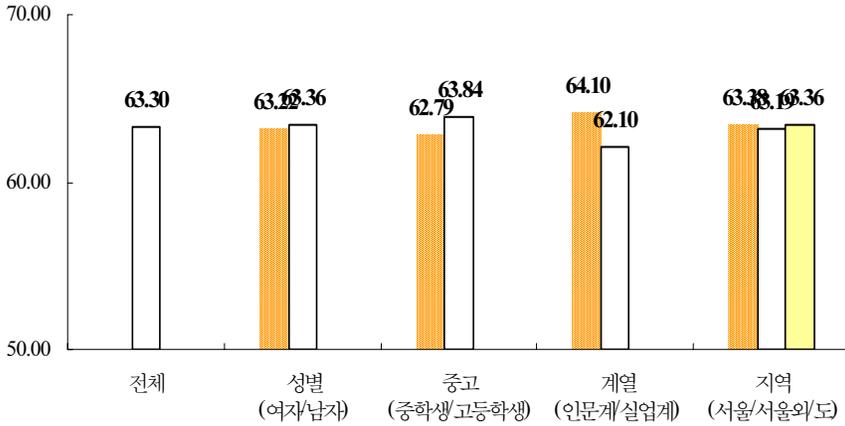
청소년의 시민적 특성 가운데 “공동체의식”을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공동체 의식”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고3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고3 = 80.12) 증가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즉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은 비교적 안정적인 발달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II-34> 공동체의식-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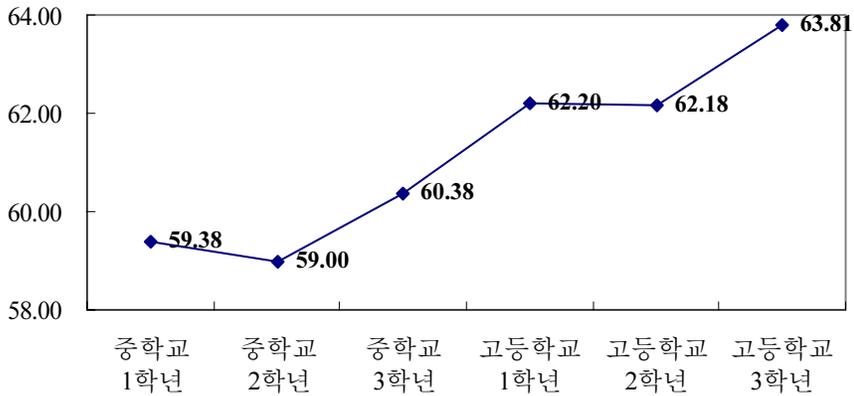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의 발달정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남자 = 63.36, 여 = 63.26).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의 국제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학생 = 62.79, 고등학생 = 63.84).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연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은 국제화 의식을 보였다(인문계 = 64.10, 실업계 = 62.10), 지역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서울지역 = 63.38, 서울외광역시 = 63.19, 도지역 = 63.36).

<그림 II -35> 공동체의식-기타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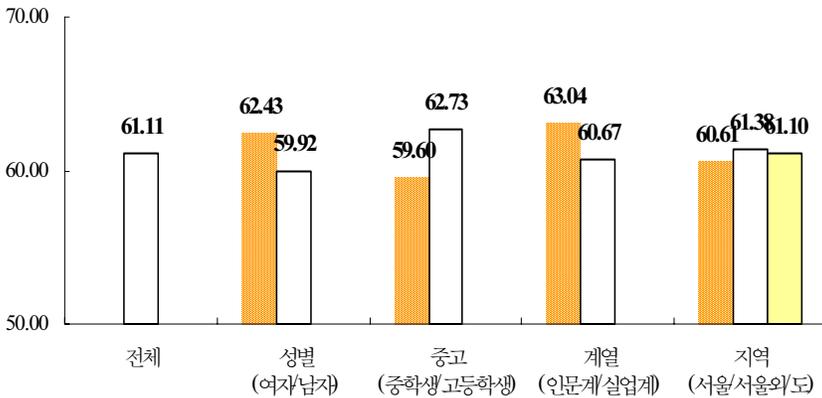
청소년의 시민적 특성 가운데 “사회참여의식”을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사회참여 의식”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고3 청소년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고3 = 65.43) 증가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림 II -36> 사회참여의식-학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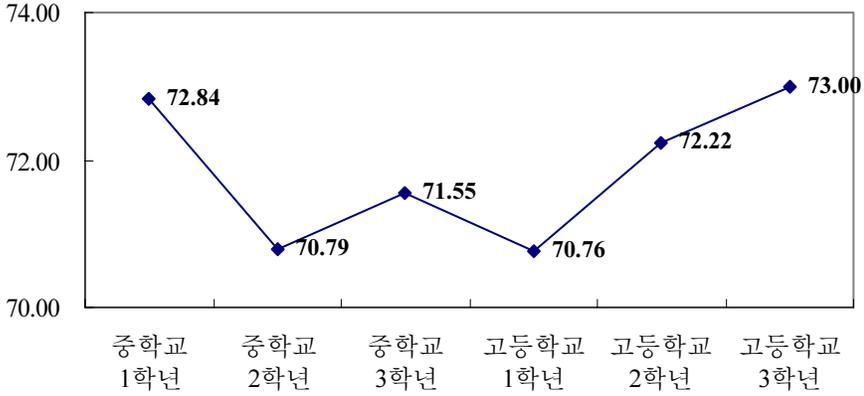
청소년의 “사회참여의식”의 발달정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참여 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남자 = 59.92, 여 = 62.43).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의 사회참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학생 = 59.60, 고등학생 = 62.73). 고등학생들 중에서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자연계 고등학생들에 비해 높은 사회참여 의식을 보였고(인문계 = 63.04, 실업계 = 60.67), 지역별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서울지역 = 63.38, 서울외광역시 = 63.19, 도지역 = 63.36).

<그림 II-37> 사회참여의식-기타변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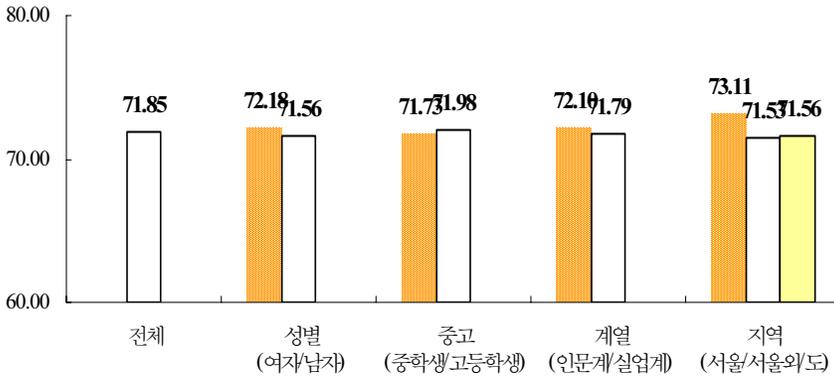
청소년의 시민적 특성 가운데 “건전한 소비의식”을 집단별로 살펴보았다. “건전한 소비의식”은 중1 청소년과 고3 청소년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연세대 변화에 따른 변화의 폭은 크지 않았다(중1 = 72.84, 고3 = 73.00). 전체적으로 중 1 청소년을 제외한다면 연령대의 증가와 함께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38> 건전한 소비의식-학년별



청소년의 “건전한 소비의식”의 발달정도를 성별, 중/고별, 계열별(고등학생만 해당),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성별로는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참여 의식을 보여주고 있었으나(남자 = 72.56, 여 = 72.18)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고등학교 학생들과 중학생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인문계 학생들과 실업계 학생들 간의 차이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중학생 = 71.73, 고등학생 = 71.98; 인문계 = 72.10, 실업계 = 71.19).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의 청소년들의 그 외 지역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소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지역 = 73.11, 서울외광역시 = 71.53, 도지역 = 71.56).

〈그림 II -39〉 건전한 소비의식-기타변수별



한국 청소년들의 시민적 특성 발달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총 여섯 개의 하위 영역 가운데 인권의식과 국제화 의식 에서 다른 영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발달 수준을 보였으며 공동체 의 식과 사회참여 의식은 매우 낮은 발달 수준을 보였다. 둘째, 청소년의 인권 의식과 국가에 대한 태도의 발달 수준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오히려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한국 청소년의 국제화 의식,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참여 의식의 발달 수준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한국 청소년의 건전한 소비의식의 발달은 중1에서 고 3에 이르기 까지 매우 안정적인 발달의 모습을 보였다.

### Ⅲ. 결론

### Ⅲ. 결론

지금까지 2007년 『한국청소년발달지표조사 II』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국 청소년 발달의 결과 부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하였다. 2005년도 결과 부문 측정문항의 생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올해 조사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본격적인 청소년 발달의 결과 부문 자료를 생산해내기에 이르렀다.

연구결과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연구는 정책적 연구와 학술적 연구로 일정 구분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결과부문 측정지표의 검증작업은 보다 학문적인 측면을 지향하고 있으며 청소년발달종합지표체계의 구축은 학문적 지향보다는 정책적인 실용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연구는 상호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정책 지향적 연구가 학문적 철저함을 갖지 못한다면 연구의 결과는 과학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그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의 생산은 의심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문적 연구가 실제 현실에서 의미를 전혀 갖지 못한다면 이 또한 엘리트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기서는 청소년 발달지표의 결과 부문 조사결과들이 어떠한 정책적 효용을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 발달의 결과 부문 조사결과는 일종의 사회지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지표는 현재의 사회 상태와 변동추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며, 나아가 공공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의 달성수준과 변화를 추적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사회지표로서 청소년 발달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결과는 현재 한국 청소년의 발달과정 및 변동의 현 상황 및 추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과학적 통계자료는 그 자체로서 현실을 반영한다. 통계자료를 통해 반영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은 통계 자체가 주지 못한다. 하나의 사회현상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계 결과 또한 그것을 활용하는 행위자의 관점과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이용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의 주관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자칫 객관적 통계자료의 왜곡 내지는 호도 까지도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조사 자료의 객관적 해석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요약 및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 17개의 청소년 발달 부문 지표 가운데 인지적 특성 중 “자기주도학습준비도”와 진로 및 직업특성 중 “진로선택의 주도성”, 시민적 특성 중 “국제화 의식”과 “사회참여의식”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바람직한 발달과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 학습을 준비하는 태도와 자신이 미래 진로 및 직업을 대한 자율적 선택 능력의 증가, 그리고 주어진 자세로 현실에의 참여를 원하는 태도의 증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당연한 발달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또 청소년의 국제화 의식은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이것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둘째, 청소년의 정의적 특성 중 “행복감”, 사회적 특성 중 “사회적 신뢰감”, 시민적 특성 중 “인권의식”, “국가에 대한 태도”등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일관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행복이란 삶의 조건에 대한 만족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 할 때, 행복감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여기에는 학교 공부 및 사교육에 대한 스트레스, 입시 및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학교 및 가정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행복감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사회적 신뢰감”이나 “국가에 대한 태도”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

성은 더욱 커진다. 미래사회를 책임질 청소년 세대의 사회적 신뢰감이나 국가에 대한 태도가 연령의 증가와 함께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한다는 것은 미래의 한국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논리를 빌자면, 사회기관 또는 전체에 대한 불신은 전체적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를 증가시켜 이는 결국 전 사회적 비용으로 결국 모든 사회구성원이 부담해야 한다. 또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공적인 일을 우선시 하는 시민의식의 감소는 미래 사회통합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신뢰감이나 국가에 대한 태도의 올바른 발달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정답은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존경할 수 있는 도덕적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겠으나 보다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 사회가 신뢰 할만한 사회이며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나라라는 사실 또는 체험의 경험을 늘리는 일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직업체험을 통해 단순하게 기술(skill)과 지식(knowledge)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맡은 바 일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성인들의 모습을 모여 줌으로써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감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결국 사회전체에 대한 신뢰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이 경우 학교 급우의 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자녀의 친구들과 자유스럽게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현재적 기능(manifest function)은 분명 진로 및 직업의 소개이지만 잠재적 기능(latent function)은 직업인 또는 생활인으로서 친구의 부모에 대한 신뢰나 믿음일 것이다. 현실 사회와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신뢰감을 회복시키는 작업은 바로 청소년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회인들과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그 과정에서 가까운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한 경제와 문화의 교류, 그것과 동시에 진행되는 전 지구적 민족주의 투쟁들, 이러한 모순적 현상들의 공존은 우리 청소년들

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가에 대한 일방적 복종과 충성의 강요는 이미 구시대적 유물이다. 또 국가나 공익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발달시키는 작업은 무엇이 과연 “올바른” 국가에 대한 태도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의 한국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긍정적인 국가에 대한 태도는 청소년에게 보다 다가가는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지하였다시피 청소년은 연령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실 사회와의 직접적 접촉이 제한되어 있다. 국가 정책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국가에 대한 매우 추상적인 관념밖에는 가질 수 없으며 또 언론지상에서 터져 나오는 부정적인 이슈들은 청소년들의 국가에 대한 태도를 더욱 강회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를 상징하는 기관으로서의 정부의 구성 및 조직, 구체적 업무, 청소년 정책기관, 청소년 정책의 종류 및 내용 등에 대한 교과서적인 소개를 넘어서는 구체적이고 친근한 설명은 분명 청소년들로 하여금 보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에 대한 태도를 견지하게 할 것이다.

셋째, 총 17개의 청소년 발달 지표 중에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매우 안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지표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정의적 특성 중 “자아개념”, 인지적 특성 중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사회적 특성 중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 진로 및 직업특성 중 “직업적 특성 이해”등이 그것이다. 이들 지표들이 중학교 1학년 시기에서부터 연령의 증가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한다는 것은 그 이전 시기에 이미 충분한 발달을 경험한다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직업적 특성 이해”의 경우는 한국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매우 이른 시기에 이미 형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든 간에 개입의 시간을 포착하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개입을 하느냐 만큼 중요한 이슈이다. 청소년의 자아개념, 창의성, 문제

해결능력 등은 전 생애를 걸쳐 개인의 학업 및 지위성취나 행복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이 연구의 결과는 자아개념,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등의 개인적 특성은 이미 초등학교 단계에서 충분한 발달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의 발달을 위한 정책적 개입 또한 가능한 이른 시기의 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지수화 작업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본고를 끝맺고자 한다. 청소년 발달의 결과 부문 지표들은 하나하나가 한국의 청소년을 상징하는 대표지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해 개발된 ‘한국청소년행복지수(Korean Youth Happiness Index)’도 역시 논의의 시작은 청소년 발달 지표 결과 부문 지표 가운데 하나인 “행복감”이었다.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 기초 토대로서 사회 지표 및 지수의 개발은 시대적 조류이다. 최근 통계청에서 중앙정부 각 부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지표(e-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를 선정한 바 있는데 이 또한 사회지표와 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 속에서 한국청소년발달지표는 보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국의 청소년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경기도(1998). 경기사회지표. 경기: 경기도
- 경찰청(각년도).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고성희(1990). 한국인의 정신건강개념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아영 외 역 (2004). 교육심리학. 박학사
- 김애순·윤진.(1995) 은퇴이후의 심리·사회적 영향 :은퇴는 위기인가? Journal of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15, No.1. 141-158.
- 김정주(1997). 미국의 청소년지표 1996. 청소년연구, 9(1). 147-184
- 김희성(2002). 빈곤가정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임파워먼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희순(2003). 청소년정책과 행정, 그 틈을 위해 필요한 노력. 청소년문화포럼, 2003년 여름호 통권7호, 108-156.
- 김진숙, 김용태, 반신환, 이소우, 조성호(1997). 청소년 위기상담.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00). 간추린 교육통계.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1). OECD 교육지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1).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인적자원부(2000). 교육통계연보.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권이중(1996). 청소년학개론: 신세대의 이해와 지도. 서울: 교육과학사.
- 대검찰청(2000).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백서. 서울: 대검찰청.
- 문화관광부(각년도).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_\_\_\_\_ (1998). 청소년육성5개년계획. 서울: 문화관광부.
- \_\_\_\_\_ (2003). 제3차 한국청소년기본계획(안).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한국청소년개발원(2003).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청소년개발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용현(1974). 사회적 행동과 학습. 서울: 교육출판사.
- 보건복지부(2000). 99 보건복지 주요행정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 서국희, 조맹제(1997). 지역사회거주 청소년의 우울증상 유병율. 정신의학, 22(2), 11-24.
- 송인섭(1989). 인간심리와 자아개념. 서울: 양서원
- 오현석(2003).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적 이해.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한국 교육개발원. 제 1장. 5-34.
- 윤명희 외(2003). 웹기반 창의성 성향검사 개발. 교육학연구, 41(3). 519-539.
- 이용남 외(2004). 교육 및 상담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이은숙 (1996). 주장훈련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불안감소 및 자기표현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200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인지, 정서 요인에 관한 실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장호. (1982).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 이철위(2003). 청소년참여의 실상과 과제. 21세기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여: 현황진단과 정책과제(세미나 자료집). 한국청소년개발원편, 730-121.
- 장문봉(2000). 지식창조와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 정옥분(1999).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원식(1968). 자아개념 검사지 및 실시요강. 서울: 코리안테스팅센터
- 조영승(2003).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역사적 변천. 청소년문화포럼, 2003년 여름호 통권7호, 15-28.
- 청소년위원회(2001). 청소년보호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_\_\_\_\_ (2002). 청소년유해환경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_\_\_\_\_ (2005). 2005 청소년백서. 청소년위원회.
- 체육청소년부(1991).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서울: 체육청소년부.
- 최인숙(1998).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여섯 가지 질문, 한국심리학회지, 17(1). 25-47.
- 통계청(2006). 2006 청소년통계. <http://www.nso.go.kr>.
- 하대현(1996). 인간지능이론과 연구의 최근동향. 교육심리연구, 10(1). 127-161.
- 하주현(2001). 창의성발달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15(2). 139-156.
- 한국교육개발원(1988). 교육지표의 체계화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6). 한국교육통계의 세계표준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1997). 교육지표 개발 및 주기적 교육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_\_\_\_\_ (2002). 인적자원지표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각년도).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여성개발원(1996). 여성사회지표개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인적자원개발지표 및 지수.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1993). 1993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1994). 1994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1997). 1997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04). 청소년개발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05). 한국청소년개발지표 연구 II : 측정도구 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_\_\_\_\_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결과부문 측정지표 검증,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_\_\_\_\_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청소년 발달 종합지표,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학회(2000). 21세기 청소년포럼: 새로운 세기의 청소년상 모색,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체육과학연구원(1994). 체육지표의 체계모형개발 및 기초조사연구. 서울: 한국체육과학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1997). 정부생산성의 개념체계와 측정지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한규석(1995).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상철 외(2004). 청소년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 함병수 외(2004). 청소년지도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허인숙, 유준상(2004). 친사회적 행동과 학습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 허혜경(2001). 성인지능의 본질 및 검사방법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9(1), 25-68.

<국외 문헌>

- Acher, S. R., Hymel, S., & Renshaw, P. D.(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456-1464. *Children's Loneliness Scale*.
- Andrews, F. M., &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New York: Plwnum Press.
- Amabile, T. M. (1988). A mode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In B. M. Staw, & L. L. Cummings (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0. 123-167. Greenwich, CT: JAI Press.
- Ames, C. (1992). Classroom: Goals, structure, and student motivation. *Journal of*

- Educational Psychology, 84, 261-271.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_\_\_\_\_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on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 Schunk, D. H. (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arron, F. & Harrington, D.M.(1981). Creativity,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2. 439-476.
- Bauer, R. A.(1966). *Social indicators*. Cambridge: MIT Press.
- Benson, P.L., and Pittman, K. J.(2001). *Trend in youth development: Visions, realities and challenge*.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Bozzer S. *Youth Empowerment: A Qualitative Study*. University of Manitoba. Master Thesis.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J. S. Scott(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36-162. CA: Sage Publications, Inc.
- Browne, M. W., Cudeck, R., Tateneni, K. & Mels, G. (2004). CEFA: Comprehensiv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Version 2.00. <http://quantrm2.psy.ohio-state.edu/browne/>
- California Task Force to Promote Self-Esteem and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1990). *Toward a state of esteem: Final report*. CA: Californi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 Candy, P. C.(1991). *Self-direction for lifelong learning: A comprehensive theory and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Carlisle, E.(1972). The conceptual structure of social indicator. In Shonfield and Shaw(Eds.), *Social indicators and social policy*. London on Heimann

Educational Books.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1989). Turning points: Preparing American youth for the 21st centur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Education of Young Adolescent. Washington, DC: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

Center for Youth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1991). A New Vision: Promoting youth development, testimony. Washington, DC: House Select Committee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eek, J. M., & Buss, A. H.(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Revised Shyness Scale.

Chinman M.J & Linney J.A(1998). Toward a Model of adolescent empowerment.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No18. 393-410.

Coopersmith, S.(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Dean, D.(1961). Alienation: Its meaning and measur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 753-758. Social Isolation Items.

Deci, E. L.(1971). Effects of externally mediated on intrins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105-115.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pp. 542-575.

Edward G. Carmines & Richard A. Zeller(1979). Reliability and Validity Assessment : quantitative applications in the social sciences. US: Sage.

Fey, W. F.(1955). Acceptance by others and its relation to acceptance of self and others:

A revalu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0, 274-276. A cceptability to Others

Gecas, V. & Burke, P. J.(1995). Self and identity. In K. S. Cook, G. A. Fine &

J. S.

House(Eds.), *Sociological perspectives on socila psychology*, 41-67. MA: Allyn and Bacon.

Guglielmino, L. M.(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Guglielmino, P. J., & Klatt, L. A.(1994).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s a characteristic of the entrepreneur*. In H. B. Long and Associates, *New ideas about self-directed learning*, Oklahoma: Oklahoma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University of Oklahoma, 161-173.

Hamburger, P. L.(1974). *Social indicators: A marketing perspectives*.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

Hammen, C., Marks, T., Mayol, A., & deMayo, R.(1985). *depressive self-schemas, life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4, 308-319.

Hecht, D. B., Inderbitzen, H. M., & Bukowski, A. L.(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dolesc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153-160.

Helmreich R., & Stapp, J.(1974). *Short forms of the texas social behavior inventory(TSBI), an objective measure of self-esteem*. *Bulletine of the Psychonomic Society*, 4, 473-475. *Texas Social Behavior Inventory(TSBI)*.

Higgins, J. M.(1994). *101 creative problem solving techniques: The handbook of new ideas for business*. NY: The New Management Publishing Company.

Hinnant L. W.(2001). *Developing a definition of youth empowerment youth's experiences of empowerment and the role of collective involvement*.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Huebner, A. J.(2003).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role of competence*. In F. A. Villarruel and others(ed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Programs,*

- policies, and practice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James, W.(1890). Principles of Psychology. New York: Holt.
- Kohn, M., & Schooler, C.(1983) Work and personality: An inquiry into the impact of social stratification. Norwood, NJ: Ablex. Chapter 4. Normlessness.
- La Greca, A. M. Dandes, S. K., Wick, P., Shaw, K., & Stone, W. L.(1988). Development of the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Reliability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7, 84-91.
-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 Landers, D. M.(1980). The arousal-performance relationship revisited.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s*, 51, 77-90.
- Lazarus, R. S., & Averill, J. R.(1972). Emotion and cogni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anxiety. In Co. spielberger(Eds.),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Levitt, E. E.(1980). The psychology of anxiety. Hillsdale, NK: Erlbaum.
- Lewinsohn, P. M., Rohde, P., & Seeley, J. R.(1998). Major depressive disorder in older adolescen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linical implica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1\_29\_1 18 (7), 765-794.
- Lightsey, O. R. Jr.(1994). "Thinking positive" as a stress buffer: the role of positive automatic cognitions in depression and happi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3). 325-34.
- Liang, J.(1985). A Structural Integration of the Affect balance scale and the life satisfaction index A. *Journal of Gerontology*, 40, 552-561.
- MacKinnon, D. W.(1962). The nature and nurture of creative talent. *American Psychologist*, 17, 484-495.
- McClelland, D. (1985). *Human Motivation*. Glenview. ILL: Scott, Foresman and company. (1961). *The achieving society*. Princeton. NJ: Van Nostrand.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ece, J. L., Blumenfeld, P. C., & Hoyle, R. H. (1988).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514-523.
- Moore, W. E., and Sheldon, E. B.(1968). *Indicators of social change: Concept and measurement*.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Morris, C. G. (1988). *Psychology: An introduction*(6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oser, C.(1973). Social indicators-system, methods and problems. *Th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19, No.2.
- Murray, H. A. (1938). *Explorations in personality: A clinical and experimental study of fifty men of college a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1996a). *Education indicator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Washington: NCES.
- \_\_\_\_\_ (1996b). *Youth Indicators*. Washington: NCES.
- O'Malley, P. M., & Bachman, J. F. (1983). Self-esteem: Change and stability between 13 and 23. *Developmental Psychology*, 19, 257-268.
- Paul, G. L.(1966). *Insight vs. desensitization in psychotherap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Speaker*.
- Perkins, D.N.(1988). The possibility of invention. In R.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362-385. NY:Cambridge University Press.
- Pittman, K. J.(1991). *Promoting Youth Development: Strengthening the Role of Youth Serving and Community Organizations*. Washington, D.C.: Academ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 Pittman, K. J., & Irby, M. (1996). Preventing problems or promoting development: Competing priorities or inseparable goals. Batimore:

-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 Putnam, R. D.(1993a).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11-18.
- Robert F. Devellis(1991).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US: Sage.
- Rogers, C. R.(196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 Rosenberg, M.(1957). *Occupation and values*(pp. 25-35). Glencoe, IL: Free Press.
- Faith in People Scale.
-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_\_\_\_\_ (1981). The self-concept: Social product and social force. In M. Rosenberg & R. H. Turner(Eds.), *Social psychology: sociological perspective*, 593-624. NY: Basic Books, Inc.
- Rotter, J. B.(1971). Generalized expectancies of interpersonal trust, *American Psychologist*, 26. 443-452. Interpersonal Trust Scale.
- Scales, P., & Leffert, N. (1999). *Development assets: A synthesis of the scientific research on adolescent development*. Minneapolis, MN: Search Institute.
- Scheussler, K.(1982). *Measuring social life feelings*. San Francisco: Jossey-bass.
- Social Life Feeling Scale 2: Doubt About the Trustworthiness of People.
- Schunk, d. H.(1983). Reward contingencies and the development of child's skills and self-efficac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 Scott, W. A.(1965). *Values and organizations: A study of fraternities and sororities*. Chicago: Rand McNally. Personal Values Scales(Loyalty).
- Search Institute(2003). *Background and history of search institute research efforts*. Retrieved June 2, 2003, from <http://www .search-institute.org/research/assets/background.html>.

- Search Institute. The 40 developmental assests for adolescents.  
<http://www.search-institute.org/assets/40AssetsList.pdf>
- Shaffer, L. F.(1952).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Houghtoon co.
- Shaffer, D. R.(2000). Social & Personality Development. Wadsworth. Belmont, CA
- Silver, W. S., Mitchell, T. R., & Gist, M. e. (1995). Responses to successful and unsuccessful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and attribu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62(3), 286-299.
- Srole, L.(1956). Social Integration and certain corolla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1, 709-716. Anomia
- Sternberg, R. J.(1988). Three-facet model of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pp.125-147. NY: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rrance, E. P.(1988). The nature of creativity as manifest in its testing. In Stenberg, R.J.(Ed.). *The nature of creativity*, pp. 43-7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1997). *Understanding youth development: Promoting positive pathways of growth*.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oodman, R. W. & Schoenfeldt, L.F.(1989). Individual differences in creativity: A interactionist perspectives. In J.A. Glover, R.R. Ronning, & Reynolds(Eds), *Handbook of creativity*, pp.77-92. NY:Plenum.
- Wood, R. E., & Cocke, E. A. (1987). The reaction of self-efficacy and grade goals to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7, 1013-1024.
- Wrightsmann, L. S.(1974). Assumption about human nature: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Monterey, CA: Brooks/Cole. Philosophies of Human Nature(Altruism).

\_\_\_\_\_ (1974). Assumption about human nature: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Monterey, CA: Brooks/Cole. Philosophies of Human Nature(Trustworthiness).

Young, G., Rathge, R., Mullis, R., & Mullis, A.(1990). Adolescent stress and self-esteem, *Adolescence*, 25(98), 333-341.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s, M. C.(1992). Self-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663-676.



부 록

# 부 록

## 1. 2007년 설문지

이 설문에서 얻어진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 2007 청소년발달지표조사

안녕하세요? 저희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에서는 청소년 정책 및 청소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청소년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청소년 정책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13조와 제14조에 의거해서 통계적으로 처리되며 개인적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오니 평소와 같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개발원  
담당 연구자: 김신영 박사(02-2189-8906)  
김상욱 교수(02-760-0412)

조사진행기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02-760-1270)

### 한국청소년개발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전화) 02-2189-8900 (팩스) 02-2189-8919  
himsy@youthnet.re.kr http://www.kiyd.re.kr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전화) 02-760-1270 (팩스) 02-744-6169  
src@dragon.skku.ac.kr http://www.src.re.kr http://www.kgss.re.kr

1.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보기》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학업)을 잘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외모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나의 성격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미래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분명한 나의 인생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지금 무엇이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헛사람의 지시에 그냥 따르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항상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틀에 박힌 대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알고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래의 글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가 생길 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문제해결 후 문제의 해결이 계획한 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반드시 되돌아 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여러분의 **미래 진로와 직업**에 관한 글들입니다.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진로는 내가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진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나 직업을 결정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열정을 바쳐 해야 할 일(직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여러분은 장래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장업포함)**을 정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input type="checkbox"/> ① 구체적으로 확정해 놓은 직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②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강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③ 아직 정해놓은 장래의 직업이 없다
---

6. 여러분의 **장래 희망직업**은 무엇입니까? 희망하는 순서대로 2개까지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개밖에 없을 경우, 1개만 응답)

예) · 선생님(x) →중학교 영어선생님(O)	연예인(x) →영화배우(O)
------------------------------	--------------------

가장 희망하는 직업 ( \_\_\_\_\_ )

두번째로 희망하는 직업 ( \_\_\_\_\_ )

7. 여러분의 집에서는 여러분의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해 주세요.

___① 전혀 하지 않는다	___② 별로 하지 않는다	___③ 보통이다
___④ 많이 하는 편이다	___⑤ 매우 많이 한다	

8. 다음은 여러분이 미래의 **진로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글들입니다. 잘 읽고 자신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V표기를 해주세요.

	아니다	그렇다
1) 나는 지난 1년 동안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 전문상담기관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___①___	___②___
2) 나는 지난 1년 동안 관심 있는 직업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거나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___①___	___②___
3) 나는 지난 1년 동안 학교공부 외에 나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다	___①___	___②___
4) 나는 지난 1년 동안 방과 후 혹은 방학을 이용하여 직업체험을 해본 적이 있다	___①___	___②___
5) 나는 지난 1년 동안 진로문제를 의논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상담전문가를 찾은 적이 있다	___①___	___②___

9. 다음은 여러분의 주변사람이나 친구에 관한 글들입니다. 잘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표시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길거리에서 내가 위험이나 곤경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인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주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아무리 낯선 사람에게라도 쉽게 말을 건넨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친구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들 간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부드럽게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를 잘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친구들 간의 갈등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보면 당장 가서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친구들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여러분은 다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세요?

	매우 신뢰	다소 신뢰	거의 신뢰하지 않음
1) 대기업사장	①	②	③
2) 연론인(기자)	①	②	③
3) 의사	①	②	③
4) 공무원	①	②	③
5) 정치인	①	②	③

11.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자 합니다. 잘 읽고 여러분의 의견을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사람들은 재산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와 같은 청소년들도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 수준 이상으로 살 수 있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개인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요시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라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8) 필요하다면 내가 사는 지역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의 혐오시설이 설치되어도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다른 나라가 자연재해나 기아와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원조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외국 것이라도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외국어 구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11-1. 여러분들은 다음의 각 내용이 궁극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국가
1) 교육	①	②
2) 의료	①	②
3) 주택	①	②
4) 일자리(또는 실업문제)	①	②
5) 노후생활	①	②

12.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글들을 잘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1) 대체로 나의 학교생활은 내가 바라던 모습에 가깝다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 2) 나의 학교생활 여건은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 3) 나는 나의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13. 다음은 여러분의 **매우 친한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친한 친구란 평소에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서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질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13-1. 매우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_\_\_\_\_ 명)

13-2. 그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몇 일정도 만납니까?

___①___ 거의 매일	___②___ 2-3일에 한번정도	___③___ 일주일에 한번 정도
___④___ 2-3주에 한번 정도	___⑤___ 한 달에 한번 정도	___⑥___ 몇 달에 한번 정도

13-3. 그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1)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 2)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 3)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 4)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14. 다음은 여러분의 **선생님**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잘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오니 숨김없이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1) 나는 학교 선생님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2)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 3)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음은 **학교생활 이외**의 질문입니다. 아래의 활동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	---------	------	----------

- 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①    ②    ③    ④
- 2)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견서 보내기)    ①    ②    ③    ④
- 3)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①    ②    ③    ④
- 4)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아르바이트 등)    ①    ②    ③    ④
- 5)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청소년음악의 밤, 박물관 견학등)    ①    ②    ③    ④

16. 다음의 각 활동에 실제로 얼마나 참여해 보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참여한 적 없다	거의 참여 하지 않았다	가끔 참여해 보았다	자주 참여해 보았다
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소감 또는 견해를 밝히는 것(교칙제정 등)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2)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3) 청소년의 능력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봉사활동 등)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4)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 (아르바이트 등)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5) 청소년들끼리 여가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거나 실행하는 것(캠프나 박물관 견학등)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개인적 사항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17. 여러분의 부모님은 현재 모두 생존해 계십니까?

___①___ 그렇다	___②___ 아버지만 돌아가심 ___③___ 어머니만 돌아가심 ___④___ 두 분 다 돌아가심
↓	↓
17_1. 그렇다면,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은 함께 살고 계십니까? ___①___ 같이 산다 ___②___ 따로 산다(별거) ___③___ 이혼 ___④___ 주말부부 ___⑤___ 해외거주 ___⑥___ 기타(____)	<b>▶ 18번 문항으로 넘어가주세요.</b>

18.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해당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___(01) 아버지	___(02) 어머니	___(03) 할아버지(할머니)
___(04) 결혼한 형(언니/누나)	___(05) 친척집에서	___(06) 형제들과 자취
___(07) 친구 또는 선후배	___(08) 혼자 살고 있다(자취)	___(09) 하숙하고 있다
___(10)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___(11) 기타 (_____)	



24. 사회계층을 아래와 같이 나누었을 때 귀하의 가정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5. 다음 문항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글을 읽어보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1) 여러분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2)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6.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기독교(개신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원불교	⑤ 기타	

⑥ 없다
------



26-1. 종교행사에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① 항상 참석한다	② 별일이 없으면 참석한다
③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④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

**☞ 27번 문항으로 넘어가주세요.**

27. 다음은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글을 읽어보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부모님이 안 계신 학생은 같이 살고 있는 보호자를 기준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과 나는 나의 진로에 대하여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형제자매와 사이 좋게 지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지금부터 여러분의 성적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 학생의 성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학기(2006년 2학기)기말 성적 → 반 전체 인원 ( )명 중의 ( ) 등

29. 다음 과목의 지난 학기(2006년 2학기) 기말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자신의 성적이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잘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1) 국어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2) 영어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3) 수학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4) 사회영역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5) 과학영역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6) 음악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7) 미술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8) 체육	___①___	___②___	___③___	___④___	___⑤___

30.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성적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___①___ 전혀 그렇지 않다	___②___ 별로 그렇지 않다	___③___ 보통이다
___④___ 다소 그렇다	___⑤___ 매우 그렇다	

31. 학생은 지난 1년 간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수업, 학습지 과외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받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받은 것인지 모두 표시해 주시고, 일주일에 총 몇 시간인지, 성적향상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과목별로 아래 표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목에 여러 가지 형태로 과외를 받았다면 모두 표기하시고 일주일에 전체 몇 시간인지 더해서 적어주세요.  
(수강형태에서 해외연수 경험이 있다면, 전체 수강시간에 포함하지 마십시오).

학원/과외 등 사교육	수강여부	수강형태(모두 응답)						전체 수강시간	과목별 사교육을 통한 성적향상 효과여부					
		개인 과외	그룹 과외	학원 수강	학습 지 과외	인터넷 (통신) 과외	학내 방과 후 과외		해외 연수	일주일 기준 평균 시간	전혀 효과 가 없었다	별로 효과가 없었다	보통 이다	다소 효과가 있었다
1) 국어 →	① 없다 ②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간 분	①	②	③	④	⑤
2) 영어 →	① 없다 ②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간 분	①	②	③	④	⑤
3) 수학 →	① 없다 ②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간 분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영역 →	① 없다 ②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간 분	①	②	③	④	⑤
5) 과학영역 →	① 없다 ②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간 분	①	②	③	④	⑤
6) 전문 교과 → (선택과목에 응답)	① 없다 ②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간 분	①	②	③	④	⑤
7) 음악 →	① 없다 ②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간 분	①	②	③	④	⑤
8) 미술 →	① 없다 ②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간 분	①	②	③	④	⑤
9) 체육 →	① 없다 ②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간 분	①	②	③	④	⑤

32.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 주세요.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오니 숨김없이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1) 담배 피우기	①	②	③	④
2) 술 마시기	①	②	③	④
3) 무단결석	①	②	③	④
4) 가출 경험	①	②	③	④
5) 성관계 경험	①	②	③	④
6)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①	②	③	④
7) 때싸움	①	②	③	④
8)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뺏기기)	①	②	③	④
9)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①	②	③	④
10) 원조 교제	①	②	③	④
11) 남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①	②	③	④
12) 남을 협박하기	①	②	③	④
13)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시키기	①	②	③	④
14) 성폭행이나 성희롱하기	①	②	③	④

33.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당해 본 적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오니 숨김없이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1) 심한 놀림이나 조롱당하기	①	②	③	④
2) 협박당하기	①	②	③	④
3) 집단따돌림(왕따) 당하기	①	②	③	④
4) 심하게 폭행 당하기	①	②	③	④
5) 성폭행이나 성희롱 당하기	①	②	③	④
6) 돈이나 물건 강제로 빼앗기기	①	②	③	④

34.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④ 다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그렇다	

35.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①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② 별로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③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④ 다소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⑤ 매우 그렇다	

36. 다음 문항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와 그 주변의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왼쪽의 글을  
잘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1) 내가 다니는 학교나 그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 2) 우리 학교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 3) 우리 학교에는 쯤뜰기,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4) 우리 학교에는 비행 청소년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5) 우리 **학교 주변**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 6) 우리 **학교 주변**에는 쯤뜰기, 절도, 폭행 등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 7) 우리 **학교 주변**에는 불량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7. 다음 문항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자주 만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지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3)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동네 어른들이 나를 꾸짖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4) 우리 동네에서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동네사람들이 말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5)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나는 동네 어른들(선생님)께 말씀을 드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6)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말리거나 경찰서(선생님)에 신고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8.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하여 계속 여쭙어 보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1) 내가 사는 동네에서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 2) 우리 동네에는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 3) 우리 동네에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 4) 우리 동네에는 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 5) 우리 동네에서는 십대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9. 다음 문항은 지금부터 **최근 2주간 여러분의 감정상태**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왼쪽의 문항을 읽어보고, 각 문항마다 솔직하게 여러분이 느꼈던 대로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	-----

- |  |   |   |   |   |   |
|--|---|---|---|---|---|
| 1) 최근 2주간 특별히 어떤 일에 흥미나 재미를 느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최근 2주간 내가 했던 일에 대해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자랑스러웠던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최근 2주간 내가 해 냈던 일에 대해 기뻐했던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최근 2주간 기분이 최고에 달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최근 2주간 많은 것이 내 뜻대로 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최근 2주간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안절부절 한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최근 2주간 매우 외롭거나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최근 2주간 지루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최근 2주간 우울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최근 2주간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듣고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다음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V표기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
|-----------------------------------|---|---|---|---|---|
| 1) 대체로 나의 생활은 내가 바라던 모습에 가깝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내 생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마지막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어 보겠습니다

41. 학생의 성별은?

\_\_\_ ① 여학생

\_\_\_ ② 남학생

42. 학생의 학년은?

\_\_\_ ① 1학년

\_\_\_ ② 2학년

\_\_\_ ③ 3학년

43.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계열은? ☞ **고등학생만** 응답하십시오.

\_\_\_ ① 인문계

\_\_\_ ② 실업계

※ 아래의 조사원 성명과 면접일시는 기입하지 마세요.

조사원 성명		면접일시	___년 ___월 ___일 ___시
--------	--	------	---------------------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07 청소년 발달지표 조사 Codebook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1-2	+@	BLOCKNO	조사구번호	부록1 참고
	3-5	+@	QMO	질문번호	###
	1-5	+@	RESPID	응답자 ID	##-##
	6	1-1	Q1_1	[정의특성: 자아개념1] 행언을 감 수해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7	1-2	Q1_2	[정의특성: 자아개념2] 위도에 만족한다	2 보통 그렇지 않다
	8	1-3	Q1_3	[정의특성: 자아개념3] 주변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보통이다
	9	1-4	Q1_4	[정의특성: 자아개념4] 성격에 만족한다	4 다소 그렇다
	10	1-5	Q1_5	[정의특성: 자아개념5] 유아기 생활에 죄짐을 다한다	5 매우 그렇다
	11	1-6	Q1_6	[정의특성: 자아개념6] 친구가 될 수도 없다	8 DK
	12	1-7	Q1_7	[정의특성: 자아개념7] 시는 게 즐겁다	
	13	1-8	Q1_8	[정의특성: 자아개념8] 이 부고자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14	1-9	Q1_9	[정의특성: 자아개념9] 인생목표가 분명하다	
	15	1-10	Q1_10	[정의특성: 자아개념10] 목표물을 가지고 있다	
	16	2-1	Q2_1	[인지적특성: 창의성1]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7	2-2	Q2_2	[인지적특성: 창의성2] 새로운 것을 알고 한다	2 보통 그렇지 않다
	18	2-3	Q2_3	[인지적특성: 창의성3] 상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3 보통이다
	19	2-4	Q2_4	[인지적특성: 창의성4] 상에 바뀔 때만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	4 다소 그렇다
	20	2-5	Q2_5	[인지적특성: 창의성5]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5 매우 그렇다
	21	2-6	Q2_6	[인지적특성: 창의성6] 화살준비도2] 탐험하기를 좋아한다	8 DK
	22	2-7	Q2_7	[인지적특성: 창의성7] 화살준비도3]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23	2-8	Q2_8	[인지적특성: 창의성8] 화살준비도4]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고 있다	
	24	3-1	Q3_1	[인지적특성: 문제해결능력1]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5	3-2	Q3_2	[인지적특성: 문제해결능력2]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2 보통 그렇지 않다
	26	3-2	Q3_3	[인지적특성: 문제해결능력3]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한다	3 보통이다
	27	3-4	Q3_4	[인지적특성: 문제해결능력4] 문제 해결을 위해 계획을 반드시 수립한다	4 다소 그렇다
	28	3-5	Q3_5	[인지적특성: 문제해결능력5] 문제 해결을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지 검토한다	5 매우 그렇다
	29	4-1	Q4_1	[진로탐색: 진로성인1] 진로는 내가 선택할 것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0	4-2	Q4_2	[진로탐색: 진로성인2] 진로성인의 핵심은 나에게 있다	2 보통 그렇지 않다
	31	4-3	Q4_3	[진로탐색: 진로성인3]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해 진로를 결정할 것이다	3 보통이다
	32	4-4	Q4_4	[진로탐색: 진로성인4]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한다	4 다소 그렇다
	33	4-5	Q4_5	[진로탐색: 진로성인5]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한다	5 매우 그렇다
	34	4-6	Q4_6	[진로탐색: 진로성인6] 솔직하게 할 일을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한다	8 DK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35	5	Q5	[진로탐색업계획] 장래 업고자 하는 구체적인 직업을 정한 상태인가	1 구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직업이 있다 2 파악하지는 않지만 대강 생각해 놓은 직업이 있다 3 아직 생각해 놓은 상태의 직업이 없다 8 DK
	36-40 41-45	6-1 6-2	Q6.1 Q6.2	[진로탐색업계획] 가장 희망하는 직업 [진로탐색업계획] 두 번째로 희망하는 직업	복불2 참고 ### 88888 DK
1	46	7	Q7	[진로탐색업계획]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의 도와 빈도	1 전혀 하지 않는다 2 별로 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많이 한다 5 매우 많이 한다 8 DK
	47	8-1	Q8.1	[진로탐색업계획] 학교/학과에서 상담받은 적이 있다	1 아니다(상담이 없다) 2 그렇다(상담이 있다) 8 DK
	48	8-2	Q8.2	[진로탐색업계획] 진로상담이나 기타 방문 상담이 있다	
	49	8-3	Q8.3	[진로탐색업계획] 소견서 작성/실천기 위해 노력하였다	
	50	8-4	Q8.4	[진로탐색업계획] 직업계획 중점이 있다	
	51	8-5	Q8.5	[진로탐색업계획] 진로탐색제도 신청/비/전문가를 찾은 적 있다	
	52	9-1	Q9.1	[사회적역량] 사회적진취성[1] 위험성 순간기가 도와 줄 것이다	
	53	9-2	Q9.2	[사회적역량] 사회적진취성[2] 내 조와 더불어 사회를 사회한다	
	54	9-3	Q9.3	[사회적역량] 사회적진취성[3] 우리 사회는 내 책임과 공헌이 필요하다	
	55	9-4	Q9.4	[사회적역량] 사회적진취성[4] 우리 사회는 내 책임과 공헌이 필요하다	
	56	9-5	Q9.5	[사회적역량] 사회적진취성[5] 우리 사회는 내 책임과 공헌이 필요하다	
	57	9-6	Q9.6	[사회적역량] 사회적진취성[6] 우리 사회는 내 책임과 공헌이 필요하다	
	58	9-7	Q9.7	[사회적역량] 사회적진취성[7] 우리 사회는 내 책임과 공헌이 필요하다	
	59	9-8	Q9.8	[사회적역량] 사회적진취성[8] 우리 사회는 내 책임과 공헌이 필요하다	
	60	9-9	Q9.9	[사회적역량] 사회적진취성[9] 우리 사회는 내 책임과 공헌이 필요하다	
	61	9-10	Q9.10	[사회적역량] 사회적진취성[10] 우리 사회는 내 책임과 공헌이 필요하다	
	62	9-11	Q9.11	[사회적역량] 사회적진취성[11] 우리 사회는 내 책임과 공헌이 필요하다	
	63	9-12	Q9.12	[사회적역량] 사회적진취성[12] 우리 사회는 내 책임과 공헌이 필요하다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1	64	10-1	Q10.1	[사회적역량] 직인인식필요성1] 대기업사장	1 매우 신뢰 2 다소 신뢰 3 거의 신뢰하지 않음 8 DK
	65	10-2	Q10.2	[사회적역량] 직인인식필요성2] 언론인(기자)	
	66	10-3	Q10.3	[사회적역량] 직인인식필요성3] 의사	
	67	10-4	Q10.4	[사회적역량] 직인인식필요성4] 공무원	
	68	10-5	Q10.5	[사회적역량] 직인인식필요성5] 정치인	
	69	11-1	Q11.1	[시민적역량] 인권의식1] 사람들은 동일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70	11-2	Q11.2	[시민적역량] 인권의식2] 외국인은 특별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71	11-3	Q11.3	[시민적역량] 인권의식3] 청소년들도 정부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72	11-4	Q11.4	[시민적역량] 인권의식4] 정부는 국민에게 최소 수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73	11-5	Q11.5	[시민적역량] 국가에대한태도1] 국민의 발전이 나의 발전이다	
74	11-6	Q11.6	[시민적역량] 국가에대한태도2] 나라의 발전이 나의 자랑스러운 일이다		
75	11-7	Q11.7	[시민적역량] 국가에대한태도3] 한국인이란 사람이 자랑스럽다		
76	11-8	Q11.8	[시민적역량] 국가에대한태도4] 필요시 내가 사는 지역에 철오시철 쫓겨도 가능하다		
77	11-9	Q11.9	[시민적역량] 국제화의의식1] 다른 나라가 어리송에 지혜를 때 친구처럼 원조해야 한다		
78	11-10	Q11.10	[시민적역량] 국제화의의식2] 외국인과 같은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79	11-11	Q11.11	[시민적역량] 국제화의의식3] 외국어 구사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80	11-12	Q11.12	[시민적역량] 국제화의의식4] 외국인 구해서 나에게 꼭 필요하지 먼저 확인한다		
2	1	11-1-1	Q11.1.1	[시민적역량] 사회적책임1] 교육	1 개인 2 국가 8 DK
	2	11-1-2	Q11.1.2	[시민적역량] 사회적책임2] 의료	
	3	11-1-3	Q11.1.3	[시민적역량] 사회적책임3] 주택	
	4	11-1-4	Q11.1.4	[시민적역량] 사회적책임4] 일자리(또는 실업문제)	
	5	11-1-5	Q11.1.5	[시민적역량] 사회적책임5] 노후생활	
2	6	12-1	Q12.1	[사회적역량] 학교생활1] 대체로 학교생활은 내가 바란된 모습에 가깝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7	12-2	Q12.2	[사회적역량] 학교생활2] 학교생활 여건은 좋을까라고 할 수 있다	
	8	12-3	Q12.3	[사회적역량] 학교생활3] 나의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2	9-10	13-1	Q13.1	[사회적역량] 친구관계] 매우 친한 친구 수	#평균 88 DK
	11	13-2	Q13.2	[사회적역량] 친구관계] 매우 친한 친구들과 일주일에 몇 일정도 만나는가	1 거의 매일 한 번 정도 2 2-3일에 한 번 정도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 2-3주에 한 번 정도 5 한 달에 한 번 정도 6 한 달에 한 번 정도 8 DK 9 NA(신원진구 없음)

Item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2	12	13-3-1	Q13_3-1	[인지적특성_친구관계1]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3	13-3-2	Q13_3-2	[인지적특성_친구관계2] 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만 같다	2 보통이다
	14	13-3-3	Q13_3-3	[인지적특성_친구관계3]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15	13-3-4	Q13_3-4	[인지적특성_친구관계4]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16	14-1	Q14_1	[사회적역량_사회관계1] 학교 선생님들과 사이가 좋은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17	14-2	Q14_2	[사회적역량_사회관계2]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 주고 싶다	2 보통이다
	18	14-3	Q14_3	[사회적역량_사회관계3]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신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19	15-1	Q15_1	[시민적역량_사회참여의식_필요성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	15-2	Q15_2	[시민적역량_사회참여의식_필요성2]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2 필요하지 않다
	21	15-3	Q15_3	[시민적역량_사회참여의식_필요성3] 청소년 관련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	3 필요하다
	22	15-4	Q15_4	[시민적역량_사회참여의식_필요성4]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활동	4 반드시 필요하다
	23	15-5	Q15_5	[시민적역량_사회참여의식_필요성5] 청소년간 여가문화행사 기획, 실행	8 DK
	24	16-1	Q16_1	[시민적역량_사회참여의식_참여1]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	1 전혀 참여할 것 없다
	25	16-2	Q16_2	[시민적역량_사회참여의식_참여2]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2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26	16-3	Q16_3	[시민적역량_사회참여의식_참여3] 청소년 관련 필요로 하는 곳에서 봉사	3 가끔 참여해 보았다
	27	16-4	Q16_4	[시민적역량_사회참여의식_참여4]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활동	4 자주 참여해 보았다
	28	16-5	Q16_5	[시민적역량_사회참여의식_참여5] 청소년간 여가문화행사 기획, 실행	8 DK
	29	17	Q17	부모님 생년여부	1 북모든 생년 2 아버지만 몰아가신 3 어머니만 몰아가신 4 두 분 다 몰아가신 8 DK
	30	17-1	Q17-1	(부모 모두 생년)부모 거주형태	1 같이 산다 2 따로 산다(별거) 3 이혼 4 수감부분 5 해외거주 6 기타 8 DK 9 NA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2	31	18-1	Q18.1	[응답자 거주 형태] 아버지와 거주	
	32	18-2	Q18.2	[응답자 거주 형태] 어머니와 거주	
	33	18-3	Q18.3	[응답자 거주 형태] 할아버지(할머니)와 거주	
	34	18-4	Q18.4	[응답자 거주 형태] 할아버지(할머니)와 거주	
	35	18-5	Q18.5	[응답자 거주 형태] 친척 집에서 거주	
	36	18-6	Q18.6	[응답자 거주 형태] 친척들과 자취	
	37	18-7	Q18.7	[응답자 거주 형태] 혼자 사는 단독주택 거주	
	38	18-8	Q18.8	[응답자 거주 형태] 혼자 살고 있다(자취)	
	39	18-9	Q18.9	[응답자 거주 형태] 학교에 있다	
	40	18-10	Q18.10	[응답자 거주 형태]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41	18-11	Q18.11	[응답자 거주 형태] 기타	
42	19-1	Q19.1	부모님의 직장과 하시는 일에 대한 인지여부	아버지	1 가장, 하는 일 모두 알고 있다
43	19-2	Q19.2	부모님의 직장과 하시는 일에 대한 인지여부	어머니	2 가장만 알고 있다 3 하는 일만 알고 있다 4 직장을 알고는 일 모두 모른다 5 일을 안하심다 6 해당안됨(사망 등) 8 DK
44-45	20-1	20-1	Q20.1	형(오빠) 수	#명
46-47	20-2	20-2	Q20.2	누나(언니) 수	88 DK
48-49	20-3	20-3	Q20.3	남동생 수	
50-51	20-4	20-4	Q20.4	여동생 수	
52	21	21	Q21	부모님이 원하는 응답자 교육수준	1 중졸 2 고졸 3 초대졸(2~3년제) 4 대졸(4년제) 5 대학원졸(석사, 박사) 8 DK
53	22	22	Q22	부친 학력	0 무학 1 학교 안 다니셨다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2년제 대학 6 4년제 대학 7 대학원 이상 8 DK
54	23	23	Q23	모친 학력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2	55	24	Q24	응답자 가정의 주관적 사회계층	1 상 2 중 3 중하 4 하 5 하의 상 6 하의 하 8 DK
	56	25-1	Q25.1	[사회적역량] 경제 상황만으로도 아닌 경제 상황에 만족하는가가 [사회적역량] 경제 상황만으로도 아닌 경제 상황에 만족하는가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57	25-2	Q25.2		1 가족(개인교) 2 불교 3 천주교 4 원불교 5 기타 6 없다 8 DK
	58	26	Q26	종교	1 항상 참석 2 불참이 있으며 참석 3 거의 참석하지 않음 4 전혀 참석하지 않음 8 DK 9 NA(응답없음)
	59	26-1	Q26.1	(종교가 있을 경우)종교행사 참석빈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60	27-1	Q27.1	부모님과 나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에게 시간을 애정을 보이지 않는다 부모님과 나의 사랑을 같이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의 진리에 대해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이름이 내가 어머니에 있어서 태반을 알고 계신다 이름이 누굴 알게 된 것인지 태반을 알고 계신다 이름이 무엇을 하는지 태반을 알고 계신다 이름이 귀가지를 태반을 알고 계신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61	27-2	Q27.2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62	27-3	Q27.3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63	27-4	Q27.4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64	27-5	Q27.5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65	27-6	Q27.6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66	27-7	Q27.7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67	27-8	Q27.8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68	27-9	Q27.9	형제자매와 사이 좋게 지내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형제자매 없음) 9 NA (형제자매 없음)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2	69-70 71-72	28-1	Q28_1	성적-전체인원	# 88 DK 99 NA (중학교 1학년)	
		28-2	Q28_2	성적-농수		
	73 74 75 76 77 78 79 80	29-1	Q29_1	06년 2학기 기말성적 수문-국어	1 매우 못하는 수준 2 잘 못하는 수준 3 중간 4 잘하는 수준 5 매우 잘하는 수준 8 DK 9 NA (중학교 1학년)	
		29-2	Q29_2	06년 2학기 기말성적 수문-영어		
		29-3	Q29_3	06년 2학기 기말성적 수문-수학		
		29-4	Q29_4	06년 2학기 기말성적 수문-사회영역		
		29-5	Q29_5	06년 2학기 기말성적 수문-과학영역		
		29-6	Q29_6	06년 2학기 기말성적 수문-음악		
29-7	Q29_7	06년 2학기 기말성적 수문-미술				
29-8	Q29_8	06년 2학기 기말성적 수문-체육				
3	1	30	Q30	성적-현재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31-1-1	Q31_1_1	[학원/과외등]사교육: 국어 수강여부	1 없다 2 있다 8 DK 9 NA
	3	31-1-2 31-1-3 31-1-4 31-1-5 31-1-6 31-1-7 31-1-8	31-1-2	Q31_1_2	[사교육수강형태: 개인과외]국어	0 비수강 1 수강 8 DK 9 NA
			31-1-3	Q31_1_3	[사교육수강형태: 그룹과외]국어	
			31-1-4	Q31_1_4	[사교육수강형태: 학원수강]국어	
			31-1-5	Q31_1_5	[사교육수강형태: 학습지(과외)국어	
			31-1-6	Q31_1_6	[사교육수강형태: 인터넷(통신)과외]국어	
			31-1-7	Q31_1_7	[사교육수강형태: 학내영과 후 과외]국어	
	31-1-8	Q31_1_8	[사교육수강형태: 해외강수]국어			
	10-11	31-1-9	Q31_1_9	[학원/과외등]사교육: 국어 일주일평수강-시간	# 시간 88 DK 99 NA	
	12-13	31-1-10	Q31_1_10	[학원/과외등]사교육: 국어 일주일평수강-분	# 분 88 DK 99 NA	
	14	31-1-11	31-1-11	Q31_1_11	[학원/과외등]사교육: 국어 성적향상효과	1 전혀 효과가 없었다 2 별로 효과가 없었다 3 보통이다 4 다소 효과가 있었다 5 매우 효과가 있었다 8 DK 9 NA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15	31-2-1	Q31_2.1	[학원/과외등]사고유: 영어 수강여부	무항 31-1-1번과 동일
	16	31-2-2	Q31_2.2	[사고유]수강형태: 개인과외 영어	
	17	31-2-3	Q31_2.3	[사고유]수강형태: 그룹과외 영어	0 비수강
	18	31-2-4	Q31_2.4	[사고유]수강형태: 학원수강 영어	1 수강
	19	31-2-5	Q31_2.5	[사고유]수강형태: 학습지과외 영어	8 DK
	20	31-2-6	Q31_2.6	[사고유]수강형태: 인터넷(통신)과외 영어	9 NA
	21	31-2-7	Q31_2.7	[사고유]수강형태: 학내방과 후 과외 영어	
	22	31-2-8	Q31_2.8	[사고유]수강형태: 해외연수 영어	
	23-24	31-2-9	Q31_2.9	[학원/과외등]사고유: 영어 일주일평균수강-시간	무항 31-1-9번과 동일
	25-26	31-2-10	Q31_2.10	[학원/과외등]사고유: 영어 일주일평균수강-분	무항 31-1-10번과 동일
	27	31-2-11	Q31_2-11	[학원/과외등]사고유: 영어 성적향상효과	무항 31-1-11번과 동일
	28	31-3-1	Q31_3.1	[학원/과외등]사고유: 수학 수강여부	무항 31-1-1번과 동일
	29	31-3-2	Q31_3.2	[사고유]수강형태: 개인과외 수학	
	30	31-3-3	Q31_3.3	[사고유]수강형태: 그룹과외 수학	0 비수강
	31	31-3-4	Q31_3.4	[사고유]수강형태: 학원수강 수학	1 수강
	32	31-3-5	Q31_3.5	[사고유]수강형태: 학습지과외 수학	8 DK
	33	31-3-6	Q31_3.6	[사고유]수강형태: 인터넷(통신)과외 수학	9 NA
	34	31-3-7	Q31_3.7	[사고유]수강형태: 학내방과 후 과외 수학	
	35	31-3-8	Q31_3.8	[사고유]수강형태: 해외연수 수학	
	36-37	31-3-9	Q31_3.9	[학원/과외등]사고유: 수학 일주일평균수강-시간	무항 31-1-9번과 동일
	38-39	31-3-10	Q31_3-10	[학원/과외등]사고유: 수학 일주일평균수강-분	무항 31-1-10번과 동일
	40	31-3-11	Q31_3.11	[학원/과외등]사고유: 수학 성적향상효과	무항 31-1-11번과 동일
	41	31-4-1	Q31_4.1	[학원/과외등]사고유: 사회영역 수강여부	무항 31-1-1번과 동일
	42	31-4-2	Q31_4.2	[사고유]수강형태: 개인과외 사회영역	
	43	31-4-3	Q31_4.3	[사고유]수강형태: 그룹과외 사회영역	0 비수강
	44	31-4-4	Q31_4.4	[사고유]수강형태: 학원수강 사회영역	1 수강
	45	31-4-5	Q31_4.5	[사고유]수강형태: 학습지과외 사회영역	8 DK
	46	31-4-6	Q31_4.6	[사고유]수강형태: 인터넷(통신)과외 사회영역	9 NA
	47	31-4-7	Q31_4.7	[사고유]수강형태: 학내방과 후 과외 사회영역	
	48	31-4-8	Q31_4.8	[사고유]수강형태: 해외연수 사회영역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3	49-50	31-4-9	Q31.4_9	[학원/재외동생]교육: 사회영역 일주일평균수강_시간	문항 31-1-1-9번과 동일
	51-52	31-4-10	Q31.4_10	[학원/재외동생]교육: 사회영역 일주일평균수강_분	문항 31-1-1-10번과 동일
	53	31-4-11	Q31.4_11	[학원/재외동생]교육: 사회영역 성적향상효과	문항 31-1-1-11번과 동일
	54	31-5-1	Q31.5_1	[학원/재외동생]교육: 과학영역 수강여부	문항 31-1-1-1번과 동일
	55	31-5-2	Q31.5_2	[사회용수강형태: 개인과외]과학영역	0 비수강 1 수강 8 DK 9 NA
	56	31-5-3	Q31.5_3	[사회용수강형태: 그룹과외]과학영역	
	57	31-5-4	Q31.5_4	[사회용수강형태: 화상수강]과학영역	
	58	31-5-5	Q31.5_5	[사회용수강형태: 화상수강]과외영역	
	59	31-5-6	Q31.5_6	[사회용수강형태: 인터넷(통신)]과외]과학영역	
	60	31-5-7	Q31.5_7	[사회용수강형태: 학내방과 후 과외]과학영역	
	61	31-5-8	Q31.5_8	[사회용수강형태: 해외진수]과학영역	
	62-63	31-5-9	Q31.5_9	[학원/재외동생]교육: 과학영역 일주일평균수강_시간	문항 31-1-1-9번과 동일
	64-65	31-5-10	Q31.5_10	[학원/재외동생]교육: 과학영역 일주일평균수강_분	문항 31-1-1-10번과 동일
66	31-5-11	Q31.5_11	[학원/재외동생]교육: 과학영역 성적향상효과	문항 31-1-1-11번과 동일	
4	1	31-6-1	Q31.6_1	[학원/재외동생]교육: 수강여부 전문교과(선택교과)	문항 31-1-1-1번과 동일
	2	31-6-2	Q31.6_2	[사회용수강형태: 개인과외]전문교과(선택교과)	0 비수강 1 수강 8 DK 9 NA (선택교과 아님)
	3	31-6-3	Q31.6_3	[사회용수강형태: 그룹과외]전문교과(선택교과)	
	4	31-6-4	Q31.6_4	[사회용수강형태: 화상수강]전문교과(선택교과)	
	5	31-6-5	Q31.6_5	[사회용수강형태: 화상수강]과외(선택교과)	
	6	31-6-6	Q31.6_6	[사회용수강형태: 인터넷(통신)]전문교과(선택교과)	
	7	31-6-7	Q31.6_7	[사회용수강형태: 학내방과 후 과외]전문교과(선택교과)	
	8	31-6-8	Q31.6_8	[사회용수강형태: 해외진수]전문교과(선택교과)	
	9-10	31-6-9	Q31.6_9	[학원/재외동생]교육: 전문교과(선택교과) 일주일평균수강_시간	
	11-12	31-6-10	Q31.6_10	[학원/재외동생]교육: 전문교과(선택교과) 일주일평균수강_분	문항 31-1-1-10번과 동일
	13	31-6-11	Q31.6_11	[학원/재외동생]교육: 전문교과(선택교과) 성적향상효과	문항 31-1-1-11번과 동일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14	31-7-1	Q31.7.1	[학원/과외]등시간: 음악] 수강여부	무항 31-1-1번과 동일
	15	31-7-2	Q31.7.2	[사교육수강형태: 개인과외]음악	
	16	31-7-3	Q31.7.3	[사교육수강형태: 그룹과외]음악	0 비수강
	17	31-7-4	Q31.7.4	[사교육수강형태: 학원수강]음악	1 수강
	18	31-7-5	Q31.7.5	[사교육수강형태: 학습지과외]음악	8 DK
	19	31-7-6	Q31.7.6	[사교육수강형태: 인터넷(통신)과외]음악	9 NA
	20	31-7-7	Q31.7.7	[사교육수강형태: 학내합과 후 과외]음악	
	21	31-7-8	Q31.7.8	[사교육수강형태: 해외연수]음악	
	22-23	31-7-9	Q31.7.9	[학원/과외]등시간: 음악] 일주일평균수강-시간	무항 31-1-9번과 동일
	24-25	31-7-10	Q31.7.10	[학원/과외]등시간: 음악] 일주일평균수강-분	무항 31-1-10번과 동일
	26	31-7-11	Q31.7.11	[학원/과외]등시간: 음악] 성적향상효과	무항 31-1-11번과 동일
	27	31-8-1	Q31.8.1	[학원/과외]등시간: 미술] 수강여부	무항 31-1-1번과 동일
	28	31-8-2	Q31.8.2	[사교육수강형태: 개인과외]미술	
	29	31-8-3	Q31.8.3	[사교육수강형태: 그룹과외]미술	0 비수강
	30	31-8-4	Q31.8.4	[사교육수강형태: 학원수강]미술	1 수강
	31	31-8-5	Q31.8.5	[사교육수강형태: 학습지과외]미술	8 DK
	32	31-8-6	Q31.8.6	[사교육수강형태: 인터넷(통신)과외]미술	9 NA
	33	31-8-7	Q31.8.7	[사교육수강형태: 학내합과 후 과외]미술	
	34	31-8-8	Q31.8.8	[사교육수강형태: 해외연수]미술	
	35-36	31-8-9	Q31.8.9	[학원/과외]등시간: 미술] 일주일평균수강-시간	무항 31-1-9번과 동일
	37-38	31-8-10	Q31.8.10	[학원/과외]등시간: 미술] 일주일평균수강-분	무항 31-1-10번과 동일
	39	31-8-11	Q31.8.11	[학원/과외]등시간: 미술] 성적향상효과	무항 31-1-11번과 동일
	40	31-9-1	Q31.9.1	[학원/과외]등시간: 체육] 수강여부	무항 31-1-1번과 동일
	41	31-9-2	Q31.9.2	[사교육수강형태: 개인과외]체육	
	42	31-9-3	Q31.9.3	[사교육수강형태: 그룹과외]체육	0 비수강
	43	31-9-4	Q31.9.4	[사교육수강형태: 학원수강]체육	1 수강
	44	31-9-5	Q31.9.5	[사교육수강형태: 학습지과외]체육	8 DK
	45	31-9-6	Q31.9.6	[사교육수강형태: 인터넷(통신)과외]체육	9 NA
	46	31-9-7	Q31.9.7	[사교육수강형태: 학내합과 후 과외]체육	
	47	31-9-8	Q31.9.8	[사교육수강형태: 해외연수]체육	
	48-49	31-9-9	Q31.9.9	[학원/과외]등시간: 체육] 일주일평균수강-시간	무항 31-1-9번과 동일
	50-51	31-9-10	Q31.9.10	[학원/과외]등시간: 체육] 일주일평균수강-분	무항 31-1-10번과 동일
	52	31-9-11	Q31.9.11	[학원/과외]등시간: 체육] 성적향상효과	무항 31-1-11번과 동일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1	32-1	Q32.1	1년간 경험빈도-출진	1 전혀 없었다 2 거의 없었다 3 가끔 있었다 4 자주 있었다 8 DK
	2	32-2	Q32.2	1년간 경험빈도-음주	
	3	32-3	Q32.3	1년간 경험빈도-마담 겸석	
	4	32-4	Q32.4	1년간 경험빈도-가톨릭병원	
	5	32-5	Q32.5	1년간 경험빈도-성안계정원	
	6	32-6	Q32.6	1년간 경험빈도-다들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7	32-7	Q32.7	1년간 경험빈도-패션쇼	
	8	32-8	Q32.8	1년간 경험빈도-남의 돈 물건 빼기	
	9	32-9	Q32.9	1년간 경험빈도-남의 물건 훔치기	
	10	32-10	Q32.10	1년간 경험빈도-원조국제	
	11	32-11	Q32.11	1년간 경험빈도-남을 속리거나 조롱	
	12	32-12	Q32.12	1년간 경험빈도-남을 속일 뻔	
	13	32-13	Q32.13	1년간 경험빈도-모임 때 불합시킴	
	14	32-14	Q32.14	1년간 경험빈도-공물 함, 영의품	
	15	33-1	Q33.1	1년간 경험빈도-심한 놀림, 조롱	1 전혀 없었다 2 거의 없었다 3 가끔 있었다 4 자주 있었다 8 DK
	16	33-2	Q33.2	1년간 경험빈도-철박	
	17	33-3	Q33.3	1년간 경험빈도-진단 따돌림	
	18	33-4	Q33.4	1년간 경험빈도-심한 폭행	
	19	33-5	Q33.5	1년간 경험빈도-정복행, 성희롱	
	20	33-6	Q33.6	1년간 경험빈도-논, 물건 빼앗기기	
5	21	34	Q34	현재 자신의 여가생활-민족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보통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22	35	Q35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양호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보통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23	36-1	Q36.1	1학년 학교나 주변이 너무가 나를 해치지 모른다 는 두려움을 느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보통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다소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8 DK
	24	36-2	Q36.2	1학년 학교 생활이 아무렇게나 버림져 있고 지켜보았다	
	25	36-3	Q36.3	1학년 학교 생활이 잘못 풀렸 등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26	36-4	Q36.4	1학년 학교 생활이 안전이 없다	
	27	36-5	Q36.5	1학년 학교 생활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켜보았다	
	28	36-6	Q36.6	1학년 학교 생활이 평범이 잘못 풀렸 등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가 있다	
	29	36-7	Q36.7	1학년 학교 생활이 불응에도 모이는 사람들이 많다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5	30	37-1	Q37_1	[특성: 동네]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자주 만나지는 편이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1	37-2	Q37_2	[특성: 동네]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믿고 지내는 편이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2	37-3	Q37_3	[특성: 동네] 동네 사람들이 음주를 한다면 동네 어른들이 꾸짖을 것이다	3 보통이다
	33	37-4	Q37_4	[특성: 동네] 동네 사람들이 있다면 동네 사람들이 맘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다	4 다소 그렇다
	34	37-5	Q37_5	[특성: 동네] 동네 친구가 불행할 경우 음주를 한다면 나는 어른들(선생님)께 말할 것이다	5 매우 그렇다
	35	37-6	Q37_6	[특성: 동네] 동네 친구가 불행하고 있다면 나는 맘리거나 경찰서(선생님)에 신고할 것이다	8 DK
	36	38-1	Q38_1	[환경: 동네] 누군가 나를 해치지 모른다 는 두려움을 느낀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37	38-2	Q38_2	[환경: 동네] 스네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지저분하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38	38-3	Q38_3	[환경: 동네] 어른과 후미진 곳이 많다	3 보통이다
	39	38-4	Q38_4	[환경: 동네] 밤에 술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 다닌다	4 다소 그렇다
	40	38-5	Q38_5	[환경: 동네] 동네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 자주 놀러다닌다	5 매우 그렇다
	41	39-1	Q39_1	2. 조건절상황: 때때로 어떤 일에서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1 예
	42	39-2	Q39_2	2. 조건절상황: 때때로 어떤 일에서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2 아니요
	43	39-3	Q39_3	2. 조건절상황: 때때로 어떤 일에서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8 DK
	44	39-4	Q39_4	2. 조건절상황: 때때로 어떤 일에서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45	39-5	Q39_5	2. 조건절상황: 때때로 어떤 일에서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46	39-6	Q39_6	2. 조건절상황: 때때로 어떤 일에서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47	39-7	Q39_7	2. 조건절상황: 때때로 어떤 일에서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48	39-8	Q39_8	2. 조건절상황: 때때로 어떤 일에서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49	39-9	Q39_9	2. 조건절상황: 때때로 어떤 일에서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50	39-10	Q39_10	2. 조건절상황: 때때로 어떤 일에서 흥미를 느낀 적이 있다	
	51	40-1	Q40_1	전반적생활: 대체로 나의 생활은 내가 바란던 모습에 가깝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52	40-2	Q40_2	전반적생활: 대체로 나의 생활은 내가 바란던 모습에 가깝다	2 별로 그렇지 않다
	53	40-3	Q40_3	전반적생활: 대체로 나의 생활은 내가 바란던 모습에 가깝다	3 보통이다
	54	41-1	Q41_1	[인지적 발달성1] 남이 말을 잘어으면 즉시 대답하는 편이다	4 다소 그렇다
	55	41-2	Q41_2	[인지적 발달성1]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보다는 혼자 있는 편이다	5 매우 그렇다
	56	41-3	Q41_3	[인지적 발달성1] 평소에 활기가 넘치는 편이다	8 DK
	57	41-4	Q41_4	[인지적 발달성1] 친구가 많으면 편이다	
	58	41-5	Q41_5	[인지적 발달성1] 친구가 많으면 편이다	
	59	41-6	Q41_6	[인지적 발달성1] 술자랑 모임에 가면 잘 어울리는 편이다	1 예
	60	41-7	Q41_7	[인지적 발달성1] 술자랑 모임에 가면 잘 어울리는 편이다	2 아니요
	61	41-8	Q41_8	[인지적 발달성1] 친구와 노는 편이다	8 DK
	62	41-9	Q41_9	[인지적 발달성1] 친구와 노는 편이다	
	63	41-10	Q41_10	[인지적 발달성1] 친구와 노는 편이다	
	64	41-11	Q41_11	[인지적 발달성1]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기 좋아한다	
	65	41-12	Q41_12	[인지적 발달성1] 다른 친구들이 활기가 넘친다고 한다	

Row No.	Column No.	Question No.	Variable Name	Variable Labels	Value Labels
5	66-67	42	Q42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	01 전혀 행복하지 않다 10 매우 행복하다 88 DK
	68	43	Q43	응답자 성별	1 여자성 2 남자성
	69	44	Q44	응답자 학년	1 1학년 2 2학년 3 3학년
	70	45	Q45	응답자 학교 계열	1 인문계 2 생활계 9 NA(응답명)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자문위원 ◆

김병수 University of Missouri · 교수

김영수 서강대학교 · 교수

김피랑 한국사회조사연구소 · 수석연구원

류숙희 다중지능연구소 · 연구원

배호순 서울여자대학교 · 교수

이명진 고려대학교 · 교수

Marc Mannes Search Institute · Director of Applied Research

Kenneth Land, Duke University, Professor

### ◆ 연구보조원 ◆

이가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

연구보고 07-R02-1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전화 (02)786-2999 대표 박진태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689-8(93330)